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松江 詩歌文學의 理念과 山水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賢 哲

2018年 8月

松江 詩歌文學의 理念과 山水觀

指導教授 孫 五 圭

金 賢 哲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金賢哲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현 승 환	
委 員	권 유 성	
委 員	孫 五 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8年 6月

The Ideology and View of the Landscape of Songgang's Poetry

Kim, Hyeon-Cheol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hn, O-Gyu,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松江 詩歌文學의 理念과 山水觀

金 賢 哲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松江의 詩歌文學은 그 文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찬사를 받아 왔으며,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송강의 시가문학은 전반적으로 山水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는 그가 산수를 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의식과 감상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른바 山水文學的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유교 사회를 살아갔던 송강은 문학 작품 속에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송강의 시가문학 작품을 통해 그의 理念的 特性이 어떻게 表象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작품을 美學的 관점으로 바라보아 그의 美意識이 어떠한 면모로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송강의 山水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經國濟民의 이념이다. 송강은 조선 사대부로서 벼슬에서 물러나 산수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본심은 經國濟民의 실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산수를 감상하며 景物에 자신의 美意識을 담아 經國濟民의 이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송강은 進退辭穗와 歸去來의 삶을 통하여 임금과 떨어져 있을 때면 어김없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戀君之情의 이념을 문학 작품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달·별·매화’ 등의 山水景物을 소재로 하고,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해 자신의 戀君意識을 형상화 하고 있다. 또한 孝를 經國濟民의 이상세계로 보고자 하였을 만큼 그는 孝라는 倫理意識을 중요시했으며, 정치적 혼란기와 전란의 상황을 통

해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憂國衷情의 이념을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내고 있다.

둘째, 송강의 山水遊賞이다. 山水遊賞은 특히 「關東別曲」에 잘 나타내어져 있는데, 송강은 관동팔경을 유람하며 山水景物을 단순한 외형적 속성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美意識을 투영시킴으로써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다. 그리고 「星山別曲」에서 성산의 景物을 감상하며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을 벗 삼아 노니는 즐거움, 즉 山水閑情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思美人曲」에서는 山水隱遁의 고독한 생활 속에서도 山水景物의 변화를 지켜 보며 자연을 意味存在로 인식하고, 山水美를 발견해내고 있다. 나아가 산수를 정치적으로 소외된 공간이 아닌 自己省察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셋째, 송강의 山水美와 山水觀이다. 그는 山水景物을 玩賞함과 동시에 人工 가미되지 않는 원초적인 대자연과 自然合一의 경지를 추구하고,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山水親和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송강은 仙境에 대한 묘사를 통해 궁극의 진리인 '道'를 깨우치고자 노력하는 정신세계의 境界를 表象하고 있으며, 산수와 술·음악의 조화로움 속에서 구체적 행위를 통해 미적인 체험과 즐거움이라는 감성의 영역인 風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그의 山水境界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공간을 상징한다.

핵심어 : 山水文學, 理念, 進退辭穗, 歸去來, 美意識, 山水美, 山水觀

목 차

<국문초록>

I. 序論	1
II. 生涯와 學問的 特性	7
1. 松江의 生涯와 仕宦	7
2. 學問的 背景과 湖南歌壇	16
3. 進退辭受와 歸去來	22
III. 詩歌文學과 理念的 表象	27
1. 經國濟民의 理想現實	27
2. 戀君之情의 形象化	31
3. 倫理意識과 憂國表情	37
IV. 歌辭文學과 山水遊賞	42
1. 關東別曲과 山水遊覽	42
2. 星山別曲과 山水閑情	47
3. 思美人曲과 山水隱遁	52
V. 山水美와 山水觀	59
1. 景物玩賞과 山水親和	59
2. 山水之樂과 理想世界	63
3. 山水境界와 山水觀	68
VI. 結論	73
<참고문헌>	76
<Abstract>	79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고대부터 우리 고전문학의 소재로 산과 물이 등장한다. 山水의 등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산수의 공간적 배경이 “인간의 五感を 자극하고 지각의 확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계가 세속을 벗어나 이상적 삶을 지향”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산수를 노래한다. 산수를 즐긴다.’는 말은 인간사회의 삶을 탈피하여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인들이 생각했던 본래의 삶이란, 산수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문학작품에는 산수에 대한 동경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산수를 동경하였으며, 山水隱遁의 삶을 통하여 山水景物을 감상함과 동시에 가치실현·자아성찰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처럼 山水隱遁과 山水憧憬 등 山水世界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으로 송강의 시가문학을 꼽을 수 있겠다.

조선 전기에 송강이 지은 시가문학 작품으로 「關東別曲」, 「星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네 편의 가사와, 삶과 산수의 심상을 다룬 80여 수의 시조, 700여 수의 한시가 있다. 이러한 송강의 작품은 그 문학성을 인정받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찬사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關東別曲」은 작자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외금강·해금강과 관동팔경의 절경을 읊은 노래로 조선시대 가사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작품이며, 「星山別曲」은 정철이 당쟁으로 정계를 물러나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隱遁해 있을 때, 당시 문인 김성원이 세운 서하당·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경치와 그의 風流

1)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5쪽.

를 예찬한 노래이다. 이 두 작품 모두 산수의 세계를 다루었고, 송강이 山水景物 감상을 통해 느끼는 자신의 美意識을 예술로 형상화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송강의 문학 작품 내용을 보면 산수를 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의식과 감상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山水文學²⁾의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송강의 산수문학적 경향은 후대의 조선조 시가문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山水遊覽을 통해 지은 그의 「關東別曲」은 대대로 수많은 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탁월한 시적 자질과 문학적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으로 조선조 문학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문학 작품에는 그 장르가 다양한데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모든 문학 작품 속에는 작자의 의식이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학이건 작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 시대의 사상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학설이 아니더라도 문학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작자의 理念的 特性, 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과 작가의 의식 및 생활환경을 보여준다.

송강 정철의 작품 가운데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임금을 향한 戀君意識이 잘 드러나 있으며,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에서도 유교 사상에 입각한 조선 시대부로서의 理念이 表象되고 있다. 이외에도 그의 여러 작품은 유교 사상을 담고 있다. 특히 “유교 절대지상주의 사회였던 조선에서 대표적인 실천 강령인 충·효·예는 인간 교육의 기본으로써, 효용성 위주의 문학관이 팽배해 있던 당시로서는 문학작품의 소재, 주제면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그리고 이와 같은 유교 사회 속에서 정치에서 나아감과 퇴진하기를 반복하며 형성된 그의 理念的 特性은 네 편의 가사뿐만 아니라 시조·한시에서도 예술로 형상화 되고 있다.

송강의 문학 작품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송강 시가에 관한 작품론적 연구는 발전적 성과물이 가장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2) 孫五圭는 산수문학이란 자연을 소재로 삼아 산수에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山水美를 형상화한 詩歌와 文學作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48쪽.)

3) 송지은, 「송강 정철 문학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1쪽.

송강 시가의 우수성과 다양한 작품세계가 주는 매력에 대한 지적인 초창기 연구에서부터 있어 왔음에도 연구되는 양에 비해 그 질적 성과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한 편이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이 연구는 송강의 시가문학 작품을 통해 그의 理念的 特性이 어떻게 表象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송강의 작품을 美學的 觀點으로 바라보고 그의 美意識이 어떠한 면모로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송강의 山水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송강은 國文學史에 남긴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 왔다. 실제 송강 시가문학과 관련된 논문은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현재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송강 문학은 전반적으로 산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의 대표작인 「關東別曲」과 「星山別曲」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또한 이에 해당한다. 이는 송강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山水觀을 표출한 것으로, 산수에 대한 연구와 함께 송강 시가문학 작품을 山水文學과 결부시킨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개관해 보면, “송강문학 연구 초기로부터 1960년에 이르는 이 시기의 연구는 민족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역사주의적 관점과 문헌학적·실증주의적 방법에 치중하는 경향을”⁵⁾ 보였는데, 김사엽(1950)⁶⁾, 김삼불(1955)⁷⁾ 등이 송강의 전기적 사실과 함께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어 1970년대에 들어

4) 崔圭穗,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14쪽.

5) 박영주 외 2명,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3, 17쪽.

6) 김사엽, 『鄭松江 研究』, 계몽사, 1950.

7) 김삼불, 『송강가사 연구』, 국립출판사, 1956.

이병주(1979)⁸⁾가 생애·단가·한시·사상 등을 다루어 종합적인 송강 문학 연구를 정리하고, 정의섭(1975)⁹⁾이 송강문학 형성에 영향을 끼친 배경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박영주(2003)¹⁰⁾는 송강의 생애와 문학의 특성을 결부시켜 평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송강 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새로워지고 연구 방법론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운 송강 문학의 작품론적 특질에 기반을 둔 문학성과 미적 특질 및 미의식에 관한 논의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¹¹⁾ 먼저 최진원(1988)¹²⁾, 최규수(1995)¹³⁾는 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송강 시가문학 연구의 폭을 넓혔고, 김진욱(2004)¹⁴⁾은 『松江 鄭澈文學의 再認識』에서 송강 시가문학을 문학작품으로 대하기보다는 고전문학으로 대하여 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문학작품을 역사가 아닌 예술로 보아 일반 문학의 관점에서 송강 문학의 미학적 실재를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김진희(2016)¹⁵⁾는 『송강가사의 수용과 맥락』에서 첫째, 송강 시가문학에 대해 행해진 조선조의 비평담론, 둘째, 비평담론들이 형성된 문학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 셋째, 후대의 작품들에 송강가사가 수용된 양상과 그 맥락을 연구하여 또 다른 방향에서 송강가사의 다층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송강 시가문학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그 우수성과 문학적 맥락에 대한 지적은 초창기 연구에서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결국은 송강의 생애와 연관된 작품의 우수성이나 표기성에 주목을 하고, 송강 시가문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기에 그친다.

근래 山水文學을 美學的으로 탐구한 손오규(2006)¹⁶⁾는 “산수문학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사령운에 의해 창시된 문학 유파로 한시로 그 흐름이 형성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사대부 계층이 노래한 시조와 가사의 발달로 순수 국문학에서 본격적인 산수문학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¹⁷⁾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조 사립

8) 李丙疇, 『松江 孤山 文學論』, 이우출판사, 1979.

9) 丁益燮, 『湖南歌壇研究』, 진명문화사, 1975.

10)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11) 박영주 외 2명,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3, 17쪽.

12) 최진원, 「송강시가의 풍류와 그 표상」, 『大東文化研究』 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13) 崔圭穗, 「松江 鄭澈 詩歌의 美的 特質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14) 김진욱 『松江 鄭澈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15)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과 맥락』, 새문사, 2016.

16)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의 산수생활에는 시가와 학문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었으며, 산수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철학적 대상을 그 주제로 설정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또한 그 간의 고전시가연구는 주로 역사사회학적 연구나 문헌주석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 개별 작품에서도 작가론이나 작품론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던 점, 문예적 연구나 특히 미학적 연구는 한정된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완하여 산수미학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山水文學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시가이론의 핵심적 문제들을 제목으로 하여 이론을 정립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山水文學的인 송강 시가문학의 山水世界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강의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山水文學的인 면모를 통해 그의 山水觀과 理念的 特性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송강 문학작품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면 우선 그의 생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벼슬에서 유배생활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송강의 시가 문학 작품 속에는 그의 삶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송강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강의 문학 작품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의 통치 이념이 유교였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를 살았던 송강 역시 조선 사대부로서 유교 사상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의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湖南歌壇의 색채가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벼슬길에 오르기 전까지 전라남도 창평에서 학문을 수학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河西 金麟厚, 高峯 奇大升, 石川 林億齡 등 당대의 최고 호남 인사들과의 교류를 하는데, 이러한 교류 속에서 호남가단의 풍류와 가창문화 전통을 체득하게 되었다.”¹⁷⁾ 따라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호남가단의 색채를 가진 송강의 學問的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17) 박소용,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 13쪽.

18)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 1998, 231쪽.

또한 송강의 일생에 있어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進退辭受의 생활을 통해 그의 험난한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송강은 벼슬길에 물러날 때마다 자신의 고향인 창평으로 내려가 자연을 벗 삼아 노니는 산수생활, 즉 歸去來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면모로, 실상 그의 내면은 조선 사대부로서 경국제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進退辭受와 歸去來가 그의 문학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는 자기 창작을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로 역사적 理念的 특징을 분명하게 지니고”¹⁹⁾ 있다. 이처럼 조선조 사회의 문학작품 속에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교 사상의 理念的 特性이 녹아들어 있으며, 송강 역시 조선사대부로서 문학작품 속 관념화된 대상물에 자신의 이념을 담아 表象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정치적 시대상을 알아보아 III장에서 송강의 시가문학 전반, 즉 가사 및 시조와 한시를 인용하여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의 理念的 特性이 어떠한 면모로 表象되고 있는지 작품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송강의 시가문학을 美學的 관점으로 접근하여 산수에 대한 그의 美意識이 작품 속에 어떠한 면모로 예술적 승화를 이루는지 살펴 볼 것인데, 특히 IV장에서 교술 장르에 속하는 그의 가사 작품만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장을 나눈 것은 시가와 가사를 따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III장에서 가사뿐만 아니라 시조와 한시를 두루 포함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IV장에서는 가사 작품만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송강이 경험했던 삶과 학문적 특성, 조선조 시대적 이념 등이 그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이 문학 작품에서 美學的으로 發現되어 山水美의 形象化를 이루고 있는지 송강 시가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과 감상, 이해를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54쪽.

II. 生涯와 學問的 特性

1. 松江의 生涯와 仕宦

정철의 아호는 송강이다. 송강의 본관은 영일이며, 고려왕조에 현감 벼슬을 역임한 정극유의 12대 손이다. 송강의 고조 정연은 병조판서를 지냈고, 증조인 정자숙은 김제군수를, 그리고 조부 저위는 건원릉참봉을 역임하였다.

송강의 부친 정유침은 효행과 우애로 이름났다고 전해지는데, 대사간을 지낸 죽산 안팽수의 딸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다. 또한 어머니 죽산 안씨 역시 효로 이름이 났었던 것으로 보아, 송강의 부모 모두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집안의 화목을 추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송강의 부친 정유침은 벼슬 없이 지내다가 큰딸이 인종의 후궁으로 들어감에 따라 돈녕부판관이 된다. 막내로 태어난 송강은 큰 누님의 힘을 업어 궁중을 자유로이 출입 하면서 명종과 함께 어울리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송강의 형제들 또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만형 滋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이 되었지만,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유배 가는 도중 태형에 의한 상처가 덧나서 일찍 죽고, 둘째 형 沼 또한 을사사화로 인해 실의에 빠져 벼슬을 포기하고 처가가 있는 호남의 순천에 은거하여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셋째 형 滉도 황해도 해주로 몸을 숨기는데, 명종 때 군기사첨정에 음보되었다. 한편, 송강의 큰 누님은 인종의 귀인이 되었고 작은 누님은 왕의 종실은 계림군 유에게 출가한다.

1) 화목한 유년시절

송강의 유년시절은 10살까지 화목하고 유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큰누님이 세자 인종의 후궁이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궁중을 빈번하게 드나드는데, 나중에 작은 누님 또한 계림군에게 출가하면서 그의 궁중 출입은 더욱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송강은 유년시절부터 왕자들과 친교를 쌓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궁중의 왕자들과 어울려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송강은 특히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과 장난도 같이하며 어울렸는데 그 우의가 두터웠다. 이처럼 대궐을 하늘의 집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그러한 곳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일은 사대부 집안의 자식으로서 대단한 영광이며, 이후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명종과의 친교는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겠다.

2) 乙巳士禍의 풍파

1545년(명종 즉위년), 송강의 나이 10살이던 해에 조선 사회에 큰 혼란을 몰고 온 乙巳士禍가 일어난다. 사화는 조선 중기에 신진사대부들이 훈신·척신 세력들로부터 받은 정치적 탄압으로 조선조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다. 그 중에서 을사사화는 명종의 외숙인 윤원형 중심의 소운세력이 중종 말엽부터 왕위 계승의 문제로 대립해 왔던 인종의 외숙 윤임을 중심한 대운세력을 역모로 엮어 제거한 사건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최대의 사화이다. 이렇게 송강은 조선사회를 크게 뒤흔들만한 을사사화로 인하여 자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영광들이 사라져 버리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에 이른다.

이 을사사화에 작은 누님의 남편 계림군 유가 윤임의 조카라는 이유로 연루되어 처형을 당하면서, 그의 처가인 송강 집안이 큰 화를 입게 되는데 이때를 『松江集』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공의 자부 계림군 유가 정순봉, 허자 등에게 구살되자, 만형 정랑공 자는 피체되어 매를 맞고 귀양을 가는 길에서 죽었으며 아버지 판관공 역시 구금되었다가 겨우 죽음만을 면하였다. 부형이 가화를 만난 뒤로부터 교훈에 뜻이 없는 고로 공은 여러 해 동안 배우지 못하였다.²⁰⁾

20) 鄭澈 『松江集』, 卷二, 別集, 年譜上. “漕家禍 公娣夫桂林君瑠被鄭順朋許滋等構殺公伯兄正郎公滋被逮杖流道卒判官公亦繫僅脫死父兄自以禍家無意於教訓故公屢年失學”(鄭存澤,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482쪽.)

위의 기록과 같이 계림군의 장인인 송강의 아버지와 만형이 잡혀 고문을 당한다. 그리고 송강의 아버지와 이조정랑의 자리에 있던 만형은 각기 다른 곳으로 유배되었다. 오래지 않아 송강의 아버지는 유배에서 풀려나지만 만형은 2년 후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이 터지면서 매를 맞고 유배지를 함경도 두만강가의 경원으로 옮겨가는 도중 매 맞은 상처가 심해 젊은 나이로 죽게 된다. 다음은 만형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은 송강의 한시 「침벽정에서 만형의 운에 차운하다枕壁亭次亡兄韻」 일부분이다.

亡兄詩句壁間留 죽은 형의 시구가 벽간에 남았나니
 小弟今來淚迸眸 작은 아우 이제와 보고 눈물이 솟네.
 千里海雲誰祭暮 바닷구름 천리 밖 누가 墓祭를 받들꼬
 一年寒食獨登樓 일년의 한식날에 홀로 누에 오르네.²¹⁾

송강은 ‘죽은 형의 시구과 벽간에 남았나니 / 작은 아우 이제와 보고 눈물이 솟네.’라고 하여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에 남아 있는 만형의 억울한 죽음을 비통하게 표현하고 있다. 뒤이은 ‘바닷구름 천리 밖 누가 墓祭를 받들꼬 / 일년의 한식날에 홀로 누에 오르네.’는 만형의 죽음을 더욱 외롭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을사사화는 하늘과 같은 궁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평온한 분위기에서 뛰어놀던 송강에게 큰 시련이었으며, 존경하던 만형의 죽음은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을사사화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가 창평에 거주하여 자신만의 山水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학문을 배우다

송강의 나이 16세 되던 1551년(명종 6년), 훗날의 선조가 되는 원자가 태어난다. 이 왕자의 탄생으로 송강의 아버지 유침은 유배에서 풀리자 부친의 묘소가

21) 鄭澈 『松江集』, 卷之一. (鄭存澤,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97쪽. 한시 인용문은 이 책을 참고함.)

있는 전라도 창평 당지산 아래 자리를 잡는다. 아버지 유침을 따라 창평으로 내려온 송강은 이곳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정계에 나가기까지 10여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을사사화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의 삶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인 청년기를 바로 이곳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송강에게 담양 창평은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담양 창평은 송강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물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을 단련시켜 주던 공간이자 훗날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벗어나 머물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삼던 안식처기도 했다.

16세인 송강은 이곳에서 沙村 金允悌와의 만남을 통하여 본격적인 배움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 만남에는 여름에 잠을 자던 김윤제가 앞개울에서 한 마리 용이 노니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일어나 개울을 찾아가보니 송강이 떡을 감고 있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렇게 송강은 김윤제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던 西河 金成遠과 동무수학의 인연을 맺게 된다.

또한 송강은 17세 되던 1552년, 김윤제의 외손녀 되는 문화유씨에게 장가든다. 이처럼 송강은 김윤제의 각별한 보살핌아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기 이전까지 호남 사림사회를 배경으로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정신적 지주인 스승 河西 金麟厚, 高峰 奇大升, 松川 楊應鼎, 石川 林億齡에게 학문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평생의 지기인 栗谷 李珥, 牛溪 成渾 등과도 교분을 맺고, 俛仰亭 宋純이나 思菴 朴淳 등 당시 영향력 있는 호남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닦아 나간다.

4) 관료진출과 시묘살이

조선왕조에 있어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관료로서의 진출을 의미한다. 관료는 당시 지배신분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고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송강 역시 사대부 신분으로 經國濟民의 뜻을 펼치고자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로 진출한다. 왕조시대에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나라에서 토지와 녹봉을 받게 되고, 가문의 영광을 가져다주며, 신분상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창평에서의 생활은 송강이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급 문인들 밑에서 학문을 배웠던 송강은 두 차례에 걸쳐 장원급제를 한다. 26세 1561년(명종 16년) 진사시에 일등으로 합격, 이후에 문과 별시에 장원으로 급제한다.

그리고 송강은 명종의 보살핌 아래, 성균관 전적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고 곧이어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홍문관과 함께 조선의 삼사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사헌부에 있으면서 이 시기에 명종의 사촌형인 경양군의 옥사라는 큰 사건을 맡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송강은 명종의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처리한다.

명묘의 중형 경양군이 처갓집 재산을 빼앗으려 하여서 처남을 불러다 남몰래 죽여 형적을 없애려고 하였는데, 죽은 시체와 친척의 기송으로 인하여 옥사가 이루어지니 경양군 부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공이 법대로 하며 흔들리지 않으니 명묘가 사적으로 공에게 축탁을 하되 “내 형이 장차 죽게 되었으니 원컨대 공은 관대히 용서하라”고 하였다. 공이 끝내 승순하지 않고, 경양군 부자는 마침내 옥중에서 죽었다. 이것이 상감의 뜻에 거슬러서 한산한 말직에 폐치되어 수삼년 동안을 청반에 오르지 못하였다.²²⁾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송강은 왕명을 거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담당하는 직책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이 잘 드러난 사건이다. 왕실이나 외척들이 정치를 이끄는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정치 현실에 더욱 환멸을 느끼고 불의에 맞서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직한 그의 품성은 여러 스승을 거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이 일로 송강은 오랫동안 좋은 벼슬길이 막혀 버린다.

1567년(명종 22년)에 명종이 승하하였다. 곧이어 선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하여 송강은 벼슬살이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선조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매일 경연에 나가 토론하였으며, 독서에 열중하는 왕이었다. 또한 사화로 인하여 침체된 정국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는데,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람들의 명

22) 鄭澈 『松江集』, 卷四, 別集, 行錄. “明廟從兄景陽君謨奪妻家財產招致妻孥弟潛殺滅跡因屍親起訟獄既成景陽父子當死公執法不撓明廟私謂公曰吾兄將死願公寬待公終不承順景陽父子竟死獄中以此忤旨發置閒職數三年不得踐清班”(鄭存澤,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668쪽.)

예를 회복시켰다.

송강은 11월에 수찬으로 승진하고, 율곡과 더불어 호당에 선출되었다. 호당에 선출되었다는 자체가 왕이 송강을 크게 쓸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조의 막강한 신임 아래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정치적 운신을 크게 넓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그는 관료진출을 통하여 조선 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이념적 가치를 확고히 향유할 수 있었고, 남다른 선조의 신임은 그의 간절한 戀君意識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승승장구하던 송강의 벼슬길에 큰 아픔이 다가오는데, 1570년(선조 3년) 송강이 35살 때에 아버지가 상을 당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함이 크다고 할 것이다.

관관공 상사를 만나 고양쇄원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공의 성품이 효성이 지극하여 곡읍하는 소리에 이웃 사람이 듣고 감동되어 혹 밥을 먹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 그리고 제수 같은 것에도 손수 스스로 섭렵을 하고 부리는 노복에게 맡기지 않으며, 모든 예식 절차는 반드시 사우들에게 질의하여 가장 옳은 것을 가려서 행하되, 전후상을 다 그렇게 하였다.

사계 김장생이 말하기를 “공은 상장 제사에 반드시 예로 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친히 보고 탄복한 바다”라고 하였다.²³⁾

위의 기록과 같이 대대로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 송강 집안에서 송강 역시 거상에 임하는 태도나 정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만, 일 년도 지나지 않은 1573년 4월에 어머니의 상을 당한다. 송강은 어머니의 상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상과 같이 정성을 다한다.

당시 조선은 유교 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는데, 어버이에 대한 ‘孝’를 중요시하게 여겼다. 특히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孝’란 목숨보다 소중한 ‘禮’이기에 송

23) 鄭澈 『松江集』, 卷四, 別集, 年譜上. “丁判官公憂廬墓于高揚新院 公性至孝哭泣之感動隣里人或有聞而廢食者祭饌手者割正不任僕御凡節文心質正於師友而求其至善前後喪皆然沙溪金先生長 生曰公喪葬祭祀心以禮此吾所親見而歎服者也”(鄭存澤,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492 쪽.)

강 역시 온 정성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7살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송강은 왕을 보필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 자신이 생각하는 ‘王道政治’를 펼쳐 나갔다. 나아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시묘살이에서는 당대의 중요한 理念的 가치인 ‘孝’를 지극 정성으로 실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당쟁과 낙향

송강은 나이 40세 상복을 벗고 다시 벼슬길에 오른다. 그가 홍문관에 이어 성균관 사성을 제수 받을 즈음에 조정에는 붕당의 조짐이 보이는데,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동·서분당의 회오리 속에서 율곡이 나서서 화합을 시도하지만, 쉽사리 그치지 않는다.

송강은 말을 돌려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모든 언행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고, 왕 앞에서도 확실한 태도로 임했으며, 선배나 후임 대신들에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냈다. 그렇기에 맑고 강직한 충신으로 칭송 받았으나 편벽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강직한 품성 때문에 적이 많은 것은 물론이다. 부드럽고 탄력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정치 현실에서 고집불통이자 원칙주의자인 송강은 동·서 분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전할 리 없다. 그는 시배들과 화합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약 2년간을 조정에서 떠나 고향인 창평에 거주하게 된다. 선조는 친히 그를 붙잡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강은 창평 향리생활 중에도 여러 번 관직을 제수 받지만 응하지 않고, 문학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1578년(선조 11년) 송강은 43세의 나이로 다시 벼슬길에 오른다. 이 무렵 율곡이 조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송강과 조정의 모든 선비들이 율곡에게 조정에 머물러 있어 동서 간의 화합을 부탁하지만 낙향을 선택한다. 율곡의 부탁에 송강은 동·서간의 분쟁을 조정·화합하려 애썼으나 그 대립적 기세는 점차 악화된다. 같은 해 11월에 사간원 대사간에 제수되나, 탄핵을 입고 체임되었다. 1579년(선조 12년) 송강이 44세 되던 봄에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려, 송강과 김계휘 등 서인세력을 사악한 무리라고 탄핵하며 공격하였다. 아울러 조정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율곡까지도 동인 세력으로부터 탄핵과 비난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정치현실에 깊은 환멸을 느낀 송강은 다시 창평으로 낙향한다.

1580년(선조 13년)에 송강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 받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다. 그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자신의 맡은 임무를 다하는데, 이때 내·외 해금강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면서 느낀 감회를 노래한 가사 「關東別曲」과 백성들의 교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단가 「訓民歌」를 지었다. 송강의 나이 46세에 관찰사에서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대사성에 제수된다. 이후 선조의 명에 따라 정승 노수신의 사면에 윤택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지었는데, 이것이 논핵에 가깝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크게 실망하여 다시 창평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같은 해 송강은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된다. 이곳에서 도내 각종 세액과 부역의 수효를 총계하여 균일하게 상정하였는데, 이를 보고 백성들이 추앙하였다. 곧이어 함경도 관찰사는 제수 받고, 선조의 특명으로 자헌대부 예조판서로 승진한다. 하지만 동인 세력의 미움을 받아 탄핵을 입는다. 이어서 지돈령부사를 제수 받고, 9월에는 예조 판서를 제수 받았는데, 송강이 화내기를 좋아하고, 모가 났다는 간원의 논핵을 입어 파면해야 한다는 상소를 받는다. 하지만 선조의 신임이 어느 때보다도 두터운 시기였기에 그는 선조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는다.

50세에 송강은 심의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논핵을 입어 창평으로 낙향하게 된다. 그는 창평에 머물면서 작품 창작에 몰두하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전후대에 걸쳐 최고의 연군가사로 칭송받는 「思美人曲」과 「續美人曲」 지었다.

이와 같이 송강의 낙향은 학문적 깊이를 가져왔으며, 이는 문학 작품으로 발현되었다. 나아가 창평에서의 산수생활은 그에게 山水景物을 깊이 감상하고, 호남 가단의 문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4년간의 낙향은 정치인 송강에게는 역경의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문학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작품 창작의 시기였다고 하겠다.

6) 己丑獄死와 유배

1589년(선조 22년) 송강이 54세 되던 해에 조선 조정에 파란을 일으킨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송강은 황급히 궁궐로 들어온다. 선조는 정여립 모반 사

건에 연루된 모든 일당을 체포하도록 명한다. 또한 모반자들의 시체를 저자거리에서 찢고, 대신들이 보게 한다. 이 사건에는 특히 수많은 동인세력들이 연루되어 있어 엄청난 옥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己丑獄死’라고 한다.

선조는 송강을 의정부 우의정에 임명하는데, 이에 겸하여 옥사를 다스리는 위관의 책임을 맡는다. 옥사의 결과 송강과 반목해 왔던 수많은 동인 고관들이 화옥을 당하게 된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능히 깨닫고, 가급적 화가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어떻게든 기축옥사에 연루된 동인 세력의 정치권력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당시 선조는 여러 왕자들 가운데 후궁 김빈을 각별히 사랑하여 김씨 소생의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산해는 송강이 김빈의 모자를 죽이려 한다고 음해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송강은 선조의 노여움을 받고, 양사의 탄핵과 함께 명천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다시 진주로 이배되었는데, 그의 근거지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강계로 재이배 된다.

이후 송강의 나이 57세 4월 조선의 역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통째로 뒤엎는 사건인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엄청난 수의 왜구들이 부산포에 침입하면서 시작된 임진왜란으로 우리의 강토는 짓밟히고 무너져 내린다. 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쳤으며, 왜구들에게 유린당하였다. 선조는 다시 송강을 부르고 그를 ‘충직하고 맑으며 큰 절개를 지닌 이[忠淸大節]’라고 일컫는데, 그만큼 송강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송강은 9월에 양호 체찰사의 명을 받들어 남하한다. 체찰이란, 조선 시대에 지방에 군사의 난이 생겼을 때 임금을 대신해 그 지방에서 군무를 총괄하는 일이다. 송강은 체찰사의 명을 받들고 남하할 때 선조에게 절대로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충간을 하기도 한다.

송강이 58세이던 마지막 해, 명나라에 사신을 다녀오고 모함을 받아 양사로부터 논박을 당하게 되는데, 선조에게 상소를 올려 사면을 청한 후, 강화 송정촌으로 물러난다. 그리고 조정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뒤인 1593년 12월 18일, 강화 송정촌에서 숨을 거둔다.

낙향에서 높은 벼슬자리로 진출, 그리고 유배생활까지 송강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기축옥사, 임진왜란 등 조선 사회의 큰 사건들 속에서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 강화 송정촌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상으로 송강의 일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유년기 시절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나 궁중에서 뛰어놀던 송강은 을사사화를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고난에 찬 유배생활을 하였다. 유배생활이 끝난 후 전라남도 창평에서 당대의 이름난 문인들과 교류 수학하고,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했지만 낙향하여 물러나고 만다. 그러나 다시 벼슬길에 진출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 했지만, 모함을 받고 쓸쓸하게 죽어갔다.

송강은 58세로 생을 마감했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한다. 송강이 세상을 떠나고 붕당의 형세에 따라 여러 차례 생전의 관작이 깎이고 회복되는 수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오랜 세월이 흐른 현재에도 칭송받는 문학 작품들을 남겼다. 나아가 시조·가사·한시 등 당대 시가문학에서 그만큼 탁월한 작품을 남긴 이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학을 보면 작자의 삶과 생각을 알 수 있듯이 번잡한 송강의 일생에서 체득한 풍부한 감정들이 어찌면 그의 문학을 더 성숙하게 하였는지 모른다.

2. 學問的 背景과 湖南歌壇

송강의 학문적 배경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유교 사상은 조선조를 지배하였던 사상이다. 그러므로 사대부의 문학 작품에서 연군 의식과 경국제민의 의식이 흐르고 있지 않는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²⁴⁾

“유교 사상의 핵심은 修己安人 즉, 자신을 갈고 닦고 남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²⁵⁾ 송강은 문학을 修己의 방편으로 삼았는데, 그는 유독 술을 자제하기 어려워 「己斷酒」, 「新年祝(五首 중 첫 번째 首)」 등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고 근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을 풀고자 『近思錄』과 『大學』, 『朱子書』 등을 애독한다.

24) 김진욱 『松江 鄭澈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46쪽.

25) 이육희, 「미학과 작가의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5쪽.

특히 이 중에서도 “金麟厚에게 배웠던 『大學』을 평생수양의 귀감으로 삼았으며, 修己와 爲人之學의 필독서로서 수시로 살피고 사색하였다.”²⁶⁾

또한 송강의 安人은 經國濟民에 대한 이상으로 그의 작품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 그가 목민관이 되어서 노래한 작품 「關東別曲」의 ‘營營中들이 無무事事하고’와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도홀시고 /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러시니 /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홀다.’의 모습은 경국제민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諭邑宰文」에서도 목민관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訓民歌」를 통하여 안인을 추구하였다.

송강은 16세부터 시작하여 과거에 진출하는 27세까지 전라남도 창평에서 거주하며 학문을 배웠는데, 성산의 지리적 위치와 승경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수려하다. 이와 같이 성산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송강의 시가문학 세계를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강의 가사 작품 「星山別曲」은 사계절에 따라 만물이 소생하고 사라지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는데, 그 화려하고 탁월한 시적 심상은 그가 거주하던 성산에서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의 시풍은 송풍에서 당풍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이전까지 인간의 다양한 정서 중 특정부분만을 강조하는 폐단을 비판하며, 인간의 자유로운 정서를 인정하는 새로운 시풍이 출현하는데, 그 시작이 호남이다. 그리고 “향촌을 거점으로 한 조선 사회의 지방적이고 전원적인 문화는 호남지방의 다양하고 풍부한 물산과 결합함으로써 독특한 풍류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많은 호남사람들은 자신들의 詩社를 만들어 문학적 교류를 일상생활처럼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학적 교류를 통해 文才를 갖추게 된 호남의 인사들은 16세기 이후부터 마침내 중앙정계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호남시단은 물론 조선 詩壇 전체에서도 文才를 날리며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²⁷⁾

또한 “16세기는 사상적으로 도학적 사유가 강화되어가는 때이기도 하면서 문학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층위의 유파가 공존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前代와 비

26) 김정민, 『松江文學의 思想的 背景과 自然觀 研究 - 漢詩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7.

27) 朴俊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26쪽.

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작가들이 출현하여 문단을 살찌웠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문학성과 예술성이 드러난 작품들이 양산되었다.”²⁸⁾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시풍의 변모로 주지적인 송시풍이 주정적인 당시풍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당시풍으로의 변모는 송시풍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낭만적이면서 爛漫한 성격을 보여준다.

당대 호남 시단 가운데 石川 林億齡은 송강의 스승으로 당대 호남의 최고 시인으로 불리었다. “또한 ‘江西時風은 물론 盛晚唐의 자유로운 구사’, ‘문단을 천단하는’ 등 호남시단의 구심점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았다.”²⁹⁾ 그리고 임억령에 대하여 백광훈은 호남시인들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로 ‘湖南 詞宗’이라 하였는데, 이는 임억령이 호남에서 가장 호남적인 시, 당풍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백의 시풍을 배웠는데, 많은 문도들에게 적선이라는 호칭을 듣기도 한다. 그리고 “당시 학문을 배우는 송강에게 낭만적인 이백의 시풍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더욱이 송강 자신 풍류에 남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보면, 석천의 문채와 풍류는 그의 호방·활달한 기질을 시로써 형상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³⁰⁾

이 시기의 시 특징은 특정 자연물을 읊은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나무, 낙엽, 국화, 소나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山水景物을 소재로 하여 임억령은 즉흥적으로 시를 읊어내었는데, 자연을 평온한 마음으로 관조하여 자연스럽게 시로 형상화 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억령의 영향으로 송강 역시 山水景物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송강의 학문적 스승으로 단연 河西 金麟厚를 꼽기도 한다. 김인후는 당시 중종과 인종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는데, 인종에게서 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주자대전’을 하사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는 “인종이 왕이 된지 약 8개월만에 운명을 달리하자 더 이상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 머무르며 사림계층과 누정에서 詩會를 결성하여 교유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후진들을 양성한다. 따라서 김인후가 남긴 산수시의 경우 대개 퇴사 후 지어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28) 박명희, 『호남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경인문화사, 2013, 35쪽.

29) 권혁명, 『석천 임억령과 식영정 시단』, 도서출판 월인, 2010, 22쪽.

30)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65쪽.

.”³¹⁾

김인후는 평소 접하는 景物에서도 ‘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에 그의 시문의 대상은 주변 山水景物의 작은 초목 군상들까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스승 김인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송강 역시 山水景物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山水文學的인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 속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를 강조함으로써,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사대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16세기 호남한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남성작가의 여성화자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김인후의 「유소사」가 그렇다. 김인후는 인종과의 인연이 각별하였기에 인종이 죽은 후 기일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곡하고 울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유소사」에서 여성화자라는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절의를 다짐하고 있으며, “홀로 남겨진 입장에서 그리움 이상의 화자의 처절한 처경과 회포”³²⁾를 그리는 戀君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화자적 특징과 戀君意識은 송강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思美人曲」, 「續美人曲」 이외에도 여러 그리고 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인후의 「유소사」는 여성화자를 활용하였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심하게 격동 시키지 않는 유학자의 참다운 모습을 보인다. 송강 역시 임금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 그리움이 크지만,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고 조선 사대부로서의 본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송강에게 있어서 김인후는 당시 사대부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충정과 절의는 자신에게 귀감이었고, 흠모하는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은 이러한 김인후의 인품 외에도 학문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인후는 시문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이름을 떨치던 인물이다. 그는 『詩經』을 수없이 독파하였고, 굴원의 「離騷」를 애독하여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두루 갖추었다. 따라서 송강이 『大學』, 「離騷」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도 김인후의 영향이 작용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1) 박명희,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 경인문화사, 2006, 13쪽.

32) 이혜순, 「河西 金麟厚의 여성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08쪽.

송강의 또 다른 학문적 스승은 高峰 奇大升으로 그는 김인후와 더불어 조선조의 대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승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는데, 고금의 서적들을 독파하였고, 철학은 물론 문학에도 그 깊이가 상당하였다. 인간의 심성을 주제로 하여 퇴계와 8년에 걸쳐 성리학 문답으로 편지왕래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四端七情理氣論’이다. 그리고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혁신적인 정치를 펼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송강은 이러한 기대승으로부터 『近思錄』 등을 배우게 된다. 기대승에게 배웠던 『近思錄』은 송강에게 학문과 인생의 지표가 되었고, 조선의 선비로서 지녀야 할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왔다. 특히 “송강의 문학 세계가 이성적 세계와 감성적 세계로의 양극단과 조화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심성을 情과 氣로서 파악하였던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성향은 기대승의 영향이 크다.”³³⁾

송강의 문학적 스승으로 俛仰亭 宋純을 말할 수 있다. 송강은 특히 국문시가에 뛰어났는데 이는 아마도 송순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송순은 강호가도의 선구자로서, 임억령과 함께 호남시단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면앙정을 짓고 당대의 이름이 높고 뛰어난 여러 시인들과 시 짓기를 하며 풍류를 즐겼다.

송강정과 면앙정의 거리는 20여리 안팎으로 매우 가까웠고, 송강과 송순은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둘의 빈번한 교류는 당연했을 것이다. 송순은 한시뿐만 아니라 국문시가에 능하였는데, 여러 편의 시조와 특히 「俛仰亭歌」는 후대에 길이 빛나는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강은 이러한 송순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그의 문학을 배워갔는데, 송강의 「星山別曲」과 송순의 「俛仰亭歌」는 그 짜임새나 내용, 시적 표현의 면에서 많이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의 경치 묘사와 풍류를 노래하였다는 점에서 송강의 「星山別曲」은 송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천산 나린 물이 정자 압 너븐 들에 울울히 퍼진드시

33) 김진욱 『松江 鄭澈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46쪽.

접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니
닷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듯 (俛仰亭歌)

滄창溪계 흰물결이 흥덩子즈알피 둘러시니
天년孫손 雲운錦금을 누라서 비혀내어
닛는듯 퍼티는듯 현스토 현스홀샤(星山別曲)³⁴⁾

문장의 대비를 떠나서 위의 두 작품 「俛仰亭歌」와 「星山別曲」에서 볼 수 있듯이 섬세하고 화려한 언어 표현과 시적 형상성이 보인다. 이와 같이 송강의 섬세하고 세련된 우리말의 감각은 송순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星山別曲」이 아니더라도 송강의 「訓民歌」는 송순의 「五倫歌」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송강의 국문시가는 송순으로 받은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송강은 “松川 楊應鼎이 1556년에서 1564년 사이 박산에서 조양대와 임류정을 짓고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할 때부터 그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약 27년간을 교유하였다.”³⁵⁾ 양응정은 대사성을 역임한 당대의 큰 학자로 특히 시문에 뛰어났다. 그는 일찍이 송강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문학적 자질을 인정한다. 하지만 송강이 문장에 치우쳐 경학을 소홀히 할 것을 염려하여 ‘文字로 虛名을 얻는 文章家’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뛰어난 스승의 영향을 받은 송강은 문학과 경학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이처럼 송강은 이름난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배움의 길을 걸었으며, 棲霞 金成遠, 栗谷 李珣, 霽峰 高敬命과 같은 최고의 문인들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특히 김성원은 김윤제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송강의 오랜 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대부분의 일생을 성산에서 문학 활동과 풍류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그는 송강이 혼란스러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창평으로 낙향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던 友라고 할 수 있다.

송강이 학문을 배우던 16세부터 27세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시기는 청년기로

34) 鄭澈, 『松江歌辭』, 跋(關西本). (李丁奎, 『松江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4, 334쪽. 가사와 시조 인용문은 이 책을 참고함.)

35) 이재석 「星山亭閣을 媒介로 한 學問的 交驩과 그 역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48~49쪽. (권혁명, 『석천 임억령과 식영정 시단』, 도서출판 월인, 2010, 62쪽. 재인용)

그 사람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송강의 시가문학에서 드러나는 탁월한 시적 감수성은 바로 이 시기에 익혔을 것이라 생각된다. 송강은 이와 같이 당대 최고의 일급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임억령·김인후·기대승·양응정 등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혔으니, 그의 시적 자질이 더욱 활짝 피고, 빛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성원, 고경명, 이이와 같은 문인들과 교류하며, 이러한 최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과 깊이를 한층 더 높였고, 나아가 섬세하고 세련되게 다듬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3. 進退辭受와 歸去來

송강의 일생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굴곡진 인생이었다. 화목한 궁중시절부터 을사사화를 겪고 집안이 무너지는 참사, 창평에서 학문을 배우고 화려한 벼슬길 진출, 낙향과 유배의 반복,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송강은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강직하게 뜻을 펼치고자 했지만, 빈번하게 반대되는 세력에게 탄핵을 받고 낙향하게 된다. 그의 낙향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불같은 충직한 심성은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였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면전에 가차 없이 쏘아 붙였기에 많은 적을 만들었다. 특히 당쟁이 본격화 되던 무렵, 자신과는 반대되는 동인 쪽의 이발과 언쟁 끝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야 만 사건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낙향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 물러나거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물러나는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현실의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고 벼슬길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러한 출사와 낙향은 조선 사대부들의 공통 관심사였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사대부로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벼슬길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생활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혼탁한 정치현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글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것이 그 단면이다.

조선 16세기는 정치현실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추악한 정치현실에서 송강은 벼슬에서 물러나 자신이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인 창평으로 내려가고자 한다. 이러한 면모는 송강뿐만 아니라 많은 사대부들에게 통용되는 사실이었다.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을 벗 삼아 정신을 수양하는 그들의 생활은, 흔히 歸去來로 일컬어진다.

송강은 네 차례에 걸쳐 창평으로 낙향한다. 창평의 생활 기간은 송강에게 뜻 깊은 의미를 갖는데, 숨 막히는 벼슬길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역경의 시기였겠지만, 문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의 창평 생활은 대부분 글을 읽고 사색을 즐기면서, 시를 짓고 당대의 문인들과 답소를 나누며 풍류를 즐겼다. 다음은 송강의 가사작품 「關東別曲」의 서사 첫 구절이다.

江江湖호에 病병이 汲汲 竹죽林림의 누엇더니(關東別曲)

출사에 앞선 송강은 작품 서두 ‘江江湖호에 病병이 汲汲 竹죽林림의 누엇더니’라고 노래한다. 이는 자신의 고향 창평을 아름다운 산수 속의 竹林이라 비유하며 자연과 벗 삼는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歸去來를 표방하며 자연에 은거하여 지냈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강호가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러내고”³⁶⁾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송강의 가사문학 작품 중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星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은 그가 낙향하여 전라남도 창평에서 생활하며 지었다. 이와 같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세 편의 가사작품을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벼슬길에서 물러나 고향인 창평에서 자연과 벗 삼아 노닐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문학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음은 송강의 가사작품 「星山別曲」의 서사 구문이다.

엇던 디날손이 梟성山산에 머물며서
棲서霞하堂당 息식影영亭亭 主主人인아 내 말 들소

36) 崔圭穗,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164쪽.

人人生生 世世間間에 도혼일 하건마는
 엇디흔 江강山산을 가디록 나이녀겨
 寂寂寞寞山山中중에 들어 아니 나시는고(星山別曲)

송강은 ‘엇디흔 江강山산을 가디록 나이녀겨 / 寂寂寞寞山山中중에 들어 아니 나시는고’라는 표현을 통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과 벗 삼아 산수생활을 즐기는 ‘棲서霞하堂당 息식影영亭亭 主主人인’을 歸去來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디날손 = 나그네’라고 자처하면서 잠시 성산에 머물러 쉬면서 벼슬길에 나아갈 때를 기다리는 사대부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송강의 내면은 經國濟民의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선 사대부로서 출사의 때를 기다리지만, 외면적으로 歸去來를 동경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사대부들에게 낙향은 드문 일이 아니기에 송강 또한 낙향을 통해 심신을 수양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문학을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 송강의 한시 「돌아오다歸來」이다.

歸來不必世相違 돌아옴이 꼭 세상을 등져서는 아니거니
 偶似陶公悟昨非 우연히 도연명처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을 뿐.
 采采黃花聊取醉 황국화 실컷 따다 취토록 즐기거늘
 倒巾高詠鴈南歸 두건도 벗겨진 채 鴈南歸를 소리 높여 읊나니.

송강이 산수로 돌아온 것은 ‘꼭 세상을 등져서는 아니’라, 도연명처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정치현실에 환멸을 느껴 관직을 버리고, 아름다운 전원에서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며, 시를 통해 자기 삶의 애환과 그들의 생활을 노래했던 당나라 이후 최고의 시인이자 歸去來의 선구자로, 송강은 그의 산수생활을 흠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어제의 잘못’이란 그릇된 정치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산수로 돌아온 송강은 ‘황국화 따서 술을 빚고 취하’며 歸去來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뒤이어 ‘두건도 벗겨질’ 만큼 빨리 ‘南 = 山水’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던 그의 心境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산수로 돌아와 기쁨에 가득찬 자신의 모습을 ‘기러기 소리 높여 노래하고’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송강의 문학 양상을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많은 戀君詩歌 작품을 남겼다. 을곧고 불같은 성품을 지닌 송강으로서는 조정에 적을 많이 두었는데, 그 적들 가운데서 자신을 두둔한 선조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戀君詩歌는 대개 정치적으로 소외상태에서 배출되었다. 다음은 송강의 가사 작품 「續美人曲」의 마지막 대목이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어이서
 넘겨신 窓창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 크니와 구존비나 되쇼셔(續美人曲)

연군가사 작품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이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벼슬길에서의 잦은 進退와 사대부로서의 戀君意識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당쟁의 인과관계 속에서 탄핵을 받아 낙향한 송강의 戀君意識은 이 두 편의 가사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두 편의 연군가사에 나타나는 섬세하고 애절한 戀君意識은 누구도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송강의 탁월한 감성의 발로이다. 송강은 임금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 있을 때면, 임금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운 정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송강에게 있어 낙향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감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나아가 문학성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송강의 나이 57세 때인 1592년(선조 25년) 민족사의 비극인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애타게 기다리던 선조 임금이 송강을 급히 찾았다. 송강은 체찰의 임무를 맡고 자신이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동서로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하지만 엉뚱한 모함을 입어 임금께 상소를 올려 사면을 청하고, 강화 송정촌으로 물러나기에 이른다. 송강은 조정에서 물러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상을 하직한다. 하루 세끼의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송강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다. 송강의 마지막 작품 「설달 초육일 밤에 앉아서臘月初六日夜坐」에서 그의 이념과 가치의식을 알아 볼 수 있다.

旅遊孤島歲崢嶸 외론 섬에서 나그네 되어 세월은 고달픈데

南徼兵塵賊未平 남쪽 변방의 戰場엔 적이 아니 평정되었네.
 千里音書何日到 천리 밖에선 서신이 언제나 이를지
 五更燈火爲誰明 五更의 등잔불은 늘 위해 밝았는고.
 交情似水流難定 사귄 정은 물과 같아 멈추기 어려웁고
 愁緒如絲亂更縈 근심의 가닥은 실과 같아 흐트려도 다시 얽이네.
 賴有使君眞一酒 원님에게 眞一酒 있음에 기대어
 雪深窮巷擁爐傾 눈 깊은 窮村에서 화로 안고 마시노라.

첫 구절 ‘외론 섬에 나그네 되어 세월은 고달픈데’라는 표현에서 강화 송정촌으로 유배되어 있는 송강의 처지가 드러난다. 또한 ‘남쪽 변방의 戰場엔 적이 아니 평정되었네.’는 계속되는 전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심의 가닥은 실과 같아 흐트려도 다시 얽이네.’라는 표현을 통해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자신의 憂國表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원님에게 眞一酒 있음에 기대어 / 눈 깊은 窮村에서 화로 안고 마시노라’에서 빈궁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조선 사대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송강은 유배생활에서 힘들고 궁벽한 처지라도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문학작품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그의 進退辭穂는 문학 단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戀君之情, 憂國表情등 유가 사대부의 정신이 더욱 투철하게 빛나도록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詩歌文學과 理念的 表象

1. 經國濟民의 理想現實

문학 작품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작가와 문학 작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모든 문학은 작가의 의도 있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 16~17세기는 유교 사상이 온 백성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으며 조선조를 지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 사대부의 많은 문학 작품에는 대부분 經國濟民과 戀君意識이 흐르고 있으며, 송강 역시 조선 사대부로서 자신의 문학작품 속에 유교 사상을 담고 있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백성들에게 經國濟民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다. 經國濟民은 나라를 맡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이념으로, 관료로서 국정에 참여하여 經國濟民의 뜻을 펴는 것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이상적인 생활이다. 송강 또한 벼슬길을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자 노력하는데, 그는 자신이 바라는 經國濟民의 이념을 담아 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송강의 나이 45세 되던 1580년(선조 13년)에 선조 임금은 송강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한다. 당쟁이라는 번잡한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향리 창평에 물러나 있던 송강은 선조의 명을 받든다. 다음은 송강의 가사작품 「關東別曲」이다.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리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關東別曲)

송강은 「關東別曲」의 서사 첫 구문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리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에서 관동지방의 관찰사를 제수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부임지에 대한 송강의 인식을 알 수 있는데, ‘關關東동 八팔百백리리’라는 표현을 통해 이곳을 자기가 다스려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목민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구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는 목민관으로서 자신이 원

하는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關東別曲」의 첫 구문 통해 당쟁의 정치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창평으로 돌아가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던 송강은 선조의 명을 받들어 기쁜 마음으로 經國濟民의 이상을 펼치고자 하였다.

開心心臺터 고터 올라 衆동香향城성 바라보며
萬만二이千천峯봉을 歷歷歷히 헤여하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뭍거든 조치 마나, 조커든 뭍지 마나
저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들고자.(關東別曲)

개심대에 오른 송강이 금강산의 ‘萬만二이千천峯봉’을 헤아려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금강산의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을 가지고 ‘저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들고자’ 한다. 뒤이어 송강은 ‘뭍거든 조치 마나, 조커든 뭍지 마나’라는 표현을 통해 산수의 기운이 너무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부터 신라의 화랑들은 명산으로 들어가 심신을 수련하고, 산의 맑은 기운을 받아 나라와 임금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송강은 山水遊覽을 통하여 大自然의 맑고 투명한 기운을 받아, 자신이 맡은 이곳에 많은 인재를 배출시키고자하는 이상적 가치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송강의 유람 여정은 단순히 山水景物의 감상이 아니라 목민관으로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圓원通通골 그늘 길로 獅스子즈峰봉을 츠자가니
그 앞뵈 너러바회 化화龍룡되 되어세라
千천年년 老노龍룡이 구비구비 서려이서
晝晝夜야의 흘너내여 滄창海회에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런는다
陰陰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關東別曲)

사자봉에서 화룡소 연못을 보는 송강의 心懷이다. 여기서 송강은 ‘千千年年 老 노龍룡이 구비구비 서려이셔’의 표현을 통해 ‘化화龍룡쇠’라는 山水景物을 ‘늬은 용’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동양에서는 예부터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용을 신성한 동물로서 숭배하였는데, 뒤이은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 日일雨우를 디런는다’의 표현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에서 ‘陰음崖애’는 ‘햇빛이 들지 않는 언덕’을 말하며, 풀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마지막 구절은 ‘그늘진 땅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내어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는 송강 자신이 좋은 시기를 얻어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로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의식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理念的 가치인 經國濟民의 美意識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강호에 기약두고」이다.

江江湖호의 期기約약두고 十십年년을 奔분走走뉘흐니
 그모라는 白백鷗구더른 더되온다 하것마는
 聖성恩은이 至지重중하기로 갓고가려 흐노라.

송강은 ‘江江湖호’ 즉, 자연을 벗 삼아 노니는 유유자적한 삶을 살려고 기약했지만,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다보니, 벌써 십년이 지나가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뒤이어 ‘白백鷗구더른 더되온다 하것마는’이라는 표현은 송강의 마음이 이미 산수생활에 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의 歸去來적인 면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송강은 산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임금의 ‘聖성恩은이 至지重중하기로 갓고가려 한다고 대답하며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시조에서 山水景物의 외형적인 묘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연’을 대변하는 ‘白백鷗구’를 등장 시켜, “현상적 삶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自然之性에 따라 즐기고자 하는 삶에 대한 회구”³⁷⁾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송강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歸去來를 동경하지만, 조선 사대부로서 설 틈 없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목민관적 자세와 經國濟民의 이념적 가치를

37)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49쪽.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당지치 다디게야」이다.

당지치 다디게야 놀애를 고태드려
靑靑天堦 구름속에 소숫더오른 말이
흰코 흰출흔 世세계계를 다시보고 말와라.

송강은 이 시조에서 구름 속으로 날아가는 ‘학’을 보며 자신을 ‘학’에 비유하고 있다. ‘학’은 신선 세계를 연상케 하는 상징물로서, 현실을 초탈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난 경지를 말할 때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런데, 이 시조에서 등장하는 ‘학’은 원래 자신이 노니는 신선의 세계가 아닌 인간 세상에 내려와, ‘긴 것이 다 떨어지도록’ 머물러 지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다시 날개를 들어 ‘靑靑天堦 구름’속에 솟아 떠올라, ‘흰출흔 世세계계’를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靑靑 구름 속’ 이라든가 ‘식원코 흰출흔 세계’는, 흔히 생각하듯 신선의 세계나 현실초탈의 경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송강이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 즉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옳을 듯하다.”³⁸⁾ 그 이유는 자신을 ‘학’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만, 그 ‘학’은 ‘긴 것이 다 떨어지도록’ 인간 세상에서 머무르는 ‘인간과 함께하는 학’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보고 말와라.’라는 표현에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송강의 강인한 의지를 살필 수 있겠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청조루 달 아래서 짓다聽潮樓月下作」이다.

壯士襟期一劍知 장사의 가슴 속을 한 자루 칼이 아나니
聽潮樓上月明時 청조루 위에 달이야 밝고야.
不報君恩不返國 君恩을 아니 갚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니
寧爲精衛繞南陲 차라리 정위새 되어서 남쪽 변방을 휘감으리.

이 시기 송강은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 임금과 떠나 멀리 떨어져 있으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 하였다. 첫 구절 ‘장사의

38)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162쪽.

가슴 속을 한 자루 칼이 아나니'에서 송강의 의지와 기백이 보인다. 그리고 '청조루 위에 달이 밝고야'라는 표현에서 '달'은 임금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뒤이은 '君恩을 아니 갚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니'에서 '임금의 은혜 =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 = 經國濟民'을 실천하고 돌아가겠다는 결의가 드러나 있다. 이처럼 송강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위의 작품들을 통해 송강은 조선 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뜻을 펼치고자 각별한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는데, 16세기 조선 상황은 붕당 간의 의견 조정이 당쟁으로 이어져 수많은 참사를 낳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그의 맑고 올곧은 품성은 때때로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단점으로 작용하여, 여러 차례의 낙향과 유배를 경험한다. 이처럼 송강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다.

2. 戀君之情의 形象化

벼슬길에 올라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던 송강은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고집 강한 인물이었다. 원만한 관계를 원하는 정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성격은 많은 적을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그렇기에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논핵을 입어 여러 차례 進退辭穂를 경험한다. 이러한 송강의 곁을 지켜준 이는 바로 선조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송강과 반대되는 세력이, 송강을 모함 할 때마다 선조는 송강을 두둔하고 보호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에 대한 충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자신을 굳게 신임하여주는 선조를 위하여 송강은 누구보다 많은 戀君詩歌를 남기게 되었고, 그 문학성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찬사를 받아왔다.

송강이 “연군의 정을 노래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유가 사대부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다. ‘때의 만남과 못 만남’이 있을 뿐, 그들의 ‘본심’은 항상 經國濟民에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군’이라는 정서 자세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유가 사대부 사회에서 두루 통용되는 보편적 윤리의식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리고 이러한 송강의 戀君之情은 왕조 사회의 시기에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임금의 신뢰와 지지를 받던 송강의 경우는 戀君之情이 다른 사대부들 보다 더 간절했다. “특히 「사민인곡」은 영문도 잘 모르는 체로 하계(下界)에 내려오게 된 한 선녀가 천상에서 모시던 입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시가(四時歌)의 형식 속에 담아 낸 가사로서, 서사(序詞)를 통하여 임과의 천생연분과 헤어진 채 늙어 가야 되는 시적화자의 처지를 설정해 두고, 후속하여 계절이 바뀌고 경물(景物)이 변함에 따라 더욱 더 새로워지는 그리움과 쌓여 가는 시름을 차례로 읊다가, 결사(結詞)에서는 마음에 맺힌 시름을 어찌지 못하고 차라리 죽어 나비가 되어 임의 옷에 옮겨 앉기를 바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⁴⁰⁾ 다음은 송강의 「思美人曲」이다.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넬제
 危위樓루에 혼자올나 水슈晶정簾님 거든 말이
 東동山산의 돌이나고 北북極극의 별이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난다(思美人曲)

가을 정경의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 구문이다. 가을은 天高馬肥의 계절로 풍성한 수확을 통하여 만물이 살찌우는 즐거운 계절이다. 반면 사람들의 감성이 더욱 예리해지고 다감해지는데, 이별하거나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외롭고 쓸쓸한 정취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입을 기다리는 독수공방 여인의 처지와 같이 송강은 ‘흐르밤 서리김’을 통하여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러기’의 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쓸쓸하고 고독한 송강의 처지가 드러나며, 입을 그리워하여 눈물 적시는 자신의 마음을 ‘기러기’의 우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39)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183쪽.

40)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 1998, 238쪽.

또한 임과 멀리 떨어진 山水隱遁의 삶에서 ‘危樓’에 혼자 오른 그는 ‘東동 산산의 들’과 北極극의 별’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危樓’에 혼자 올랐다는 것으로 여성으로서의 나약함을 떨쳐 임을 보고자하는 강한 연군의 의지를 표출하였으며, ‘달’과 ‘별’을 통해서 임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송강은 山水景物에서 가을이 빚어내는 쓸쓸하고 고독한 자신의 心境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危樓’에 혼자 오를 만큼 강한 연군의 의지와 ‘달’과 ‘별’이라는 임과의 거리감을 나타냄으로써 그의 간절한 戀君之情을 형상화하고 있다.

黃昏昏의 들이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논듯 반기논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梅花화 것거내여 넘겨신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보고 언더타 너기실고(思美人曲)

송강은 ‘黃昏昏의 들이조차 벼마티 빗최니’라는 표현을 통해 ‘黃昏昏’이 지고 밤이 되어 ‘달빛 = 임금의 은혜’가 베개 밑에 비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뒤이어 ‘늦기논듯 반기논듯 님이신가 아니신가’라는 임의 부재를 이야기함으로써 고독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독한 상황에서도 송강은 ‘더梅花화 것거내여 넘겨신디 보내오져’ 하는데,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매화의 절개, 즉 자신의 절개를 임금에게 보내고자 한다.

이처럼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 곁에서 經國濟民의 정치를 펼쳤던 송강은 과거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송강은 ‘매화’라는 山水景物을 통하여 “현상을 초탈한 어떤 정신적 가치”⁴¹⁾, 즉 자신의 절개를 보내고자 하는데,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그리워하는 戀君之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내 마음 베어 내어」이다.

내마음 버혀내여 별들을 밍글고져
 구만리 당턴의 번드시 걸려이서

41)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 428쪽.

고은 님 계신 고덕 가 비취어나 보리라

임과 이별한 여인의 정서를 대신하여 주는 매개물로, ‘달’이라는 山水景物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자기의 마음으로 달을 만들어 임 계신 곳에 가 비취어 보겠다는 것이다. 달이 소재가 된 것은 달이 光明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밤으로 어둠의 상황을 암시한다. 九萬里 長天의 空間的 背景은 作中話者의 이상의 아스라한 높이를 비유하기도 하고, 암흑을 제거해야 할 세계의 드넓은 폭을 암시하기도 한다.”⁴²⁾ 이처럼 송강은 그리운 임이 달을 쳐다보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신은 달이 되어 임을 비추고자 하는 戀君之情의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머귀넙 디거야」이다.

머귀넙 디거야 알와다 ㄹ 올헌줄을
細세雨우淸淸江강이 서느립다 밤기운이야
千천리니의 님니별호고 줌못드러 호노라

인간은 쓸쓸한 가을이 오면 마음이 요동치기 마련이다. 송강은 초장에서 오동나무 잎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가을을 알아 차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른 채, 즉 시간의 흐름조차도 감지하지 못한 채 연모 혹은 이별의 아픔을 간직하고 지낸 시적 화자의 고충”⁴³⁾을 나타낸 것이다. 뒤이어 ‘細세雨우淸淸江강’ 곧 가는 비와 맑은 강을 바라보는 그의 心境은 서글프며, 차가운 밤기운은 송강의 마음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송강은 계절의 변화와 오동나무 잎이라는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해 그의 고독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임을 그리워하는 戀君之情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은 「續美人曲」의 마지막 대목이다.

어와 虛허事사로다 이념이 어디간고

42) 朴俊圭, 『松江 時調 研究』,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語學教育(國語)專攻, 1992, 28쪽.

43) 崔圭穗,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233쪽.

결의 니러안자 窓창을 열고 보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어이서
 넘겨신 窓창밧긔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돌이야 크니와 구존비나 되쇼셔.(續美人曲)

잠을 깨고 보니 모든 것이 허사였고, 가엾은 그림자만 나를 좇을 뿐이다. 뒤이
 어 송강은 내 몸이 죽어서 지는 달이라도 되어, 임 계신 창 밖에 가서 비추고 싶
 다 말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달은 그만두고 굶은비가 되어 임의 창을
 두드리고 싶다는 가엾고도 애절한 戀君之情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대목에서 ‘落낙月월’은 “서쪽으로 지는 달이므로 哀傷的인 분위기를
 우선 느끼게 하는데,”⁴⁴⁾ 서쪽으로 지기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번듯이’ 비추고
 자하는, 즉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하게 나타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落낙月월’이 멀리서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표방한다고 본다면, ‘구존비’
 는 임이 계신 ‘窓창’을 두드릴 만큼 가까이서 임을 모시고자하는 염원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송강은 ‘달’과 ‘굶은비’라는 山水景物을 마주하며, 자신의
 느끼는 연군의 마음상태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해 나가는 서정의 미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송강의 문학 작품에서 연군의 정은 가사·시조·한시 모든 장르에 전반적으로 드
 러난다. 다음은 송강이 벼슬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지낼 때 지은 한시 7언절구 10
 수 「고양 산기슭 집에서 읊어 경로에게 부치다高陽山齋有吟奇景魯」에서 한 수만을 들
 어보도록 하겠다.

峽裏風濤半夜雷 산협의 바람과 물결 밤중에 우레 같아
 旅遊秋枕夢頻回 나그네 가을 베갯가에 꿈이 자주 깨는고야.
 衰年每失佳人約 노년에 임의 언약일랑 매번 잊어버리니
 只待天明不待來 날 밝길 기다릴 뿐 오는 건 기다리진 않네.

44)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375쪽.

외진 이곳으로 물러나게 한 현실의 모진 풍파는, 山水景物의 우레 소리가 되어 잠 못 이루게 한다. 나이 들어 임과의 언약을 매번 잊어버리나, 임께서 다시 나를 찾기를 바랄 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밤이 지나 새벽이 오기를 기다린다. 언제 어디서나 그저 임의 생각뿐이다. 정치 현실의 풍파에서 물러났지만, 그리운 임께서 분명 나를 찾아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戀君’은 조선조 유가 사대부라면 누구나 표방하는 정서다. 왕조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임금을 모시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신하된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송강의 문학 작품 전반에 유독 ‘戀君意識’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것은, 벼슬길에서 자신을 믿고 신임했던 선조 임금에 대한 충절로 그는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하여 조선 사대부의 이념적 가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霞堂夜坐 밤에 하당에 앉아서」이다.

移席對花樹 자리 옮겨 꽃나무랑 대하고
 下階臨玉泉 계단 내려 맑은 샘에 다다랐네.
 因之候明月 이곳에서 맑은 달 기다리느니
 終夜望雲天 밤이 다하도록 구름 하늘만 보네.

송강은 ‘꽃나무 - 맑은 샘 - 맑은 달 - 구름 하늘’로 시선을 이동 시키고 있다. 여기서 ‘맑은 달 = 임금’, ‘구름 하늘’은 ‘조정의 간신’으로 본다면, ‘맑은 달’을 기다리는 근심 가득한 송강의 心境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시선의 이동에 따른 山水景物은 임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송강의 心境을 심화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송강은 왕조중심사회를 이루는 天命思想을 기본적으로 갖춘 조선사대부로서,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해 자신의 戀君意識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倫理意識과 憂國衷情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은 ‘孝’라고 할 것이다.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모든 힘과 열성을 다하여 길러주는 부모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특히 조선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孝’의 실천은 모든 사대부들의 목표이자 倫理意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강은 효가 뛰어났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 정유침도 특별히 효에 밝았고, 아들 종명이 송강이 죽어감에 단지하였다는 기록을 보아도 자손들 역시 효에 뛰어났으니, 효는 내림이라는 예기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⁴⁵⁾ 또한 그의 스승들과 교우들이 모두 효에 뛰어났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효는 자연스럽게 발현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김장생이 쓴 송강의 행록이다.

공은 효도로써 부모를 섬기고 부드러운 빛으로 형제를 대하며 초상과 장사며, 제사에 반드시 예법으로 함은 사람이 다를 수 없는 바로써 내가 친히 보고 탄미한 바이다.⁴⁶⁾

“김장생이 지인으로서 호평만을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다만 대신으로서 너그럽지 못하고 도량이 작으매 때로는 주색에 초월하지 못한’ 흠결까지 함께 적은 것을 보면 송강은 효도와 형우제공을 몸소 실천하고 청렴한 인물이었음은 사실로 보인다.”⁴⁷⁾ 이처럼 남달리 효에 밝았던 송강은 「訓民歌」를 통하여 부모의 은덕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訓民歌」는 송강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도민을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16수의 연시조로 첫 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분 곳 아니시면 이몸이 사라실가

45) 김진옥, 『松江 鄭澈 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56쪽.

46) 鄭澈, 『松江集』, 卷四, 別集, 行錄. “公事父母以孝待兄弟怡愉喪葬祭祝心以禮此人所不及余所親見以歎美者”(鄭存澤, 『國譯 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667쪽.)

47) 황병익, 『고전시가의 숲을 누비다』, 도서출판 역락, 2015, 275쪽.

하늘 ㄱ툃 ㄱ업순은德덕을 어더다혀 갑스오리(訓民歌)

송강은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 하늘 ㄱ툃 ㄱ업순은德덕을 어더다혀 갑스오리’라고 하며,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부모는 어린애에 대해서 신神과 같은 존재요,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인간의 2대 비극은 부모 없는 고아가 되는 것과 나라 잃은 망국인亡國人이 되는 것이라 한다. 어린애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사실 부모 없는 어린애는 버림받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나를 낳아서 정성으로 키우고 한없이 사랑해 주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효孝의 윤리로 표현되었다.”⁴⁸⁾ 이처럼 송강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인간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孝’의 倫理意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다.

아버이 사라신제 섬길일란 다흐여라
디나간후면 애롭다 엇디흐리
평생생애 곱터 못홀 일이 이뿐인가 흐노라.(訓民歌)

위의 시조는 송강의 「訓民歌」 16수 가운데 또 다른 한 수로 ‘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송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회뿐이기에 살아계실 적에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송강의 생애를 살펴보았듯이, 그의 아버지 정유침은 을사사화의 여파로 유배생활을 하였다. 송강 또한 아버지를 따라 함께 유배지를 돌아다녔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죽음 또한 그 슬픔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모님의 상에 있어서 그 태도와 정성이 지극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孝’는 당대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倫理意識이자 모든 언행에 바탕이 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關東別曲」의 한 구절로 송강 자신이 바라는 倫理意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孝’를 들기도 하였다. 해당 구절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豆흙시고

48) 류연석, 『시조와 가사의 해석』, 도서출판 역락, 2006, 107쪽.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리시니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홀다.(關東別曲)

‘江강陵능 大대都도護호 風풍俗속이 도홀시고 / 節절孝효旌정門문이 골골이 버리시니 / 比비屋옥可가封봉이 이제도 잇다홀다.’라는 표현을 통해 송강은 강원도 관찰사로서 부임한 후, 孝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꿈꾸고 있다.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에서도 지극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했기에 이를 기리며 세운 비가 효자비로 ‘孝’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倫理意識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송강은 관동지방에서 관찰사를 역임한 후, 자신이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생각하는 ‘孝’를 理念的 바탕으로 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오늘날 ‘孝’는 여전히 중요한 덕목으로 倫理意識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그 중요성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다. 이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다양한 문화의 유입 등으로 가치의식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孝’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우리는 송강의 문학 작품을 통하여 ‘孝’를 알아가고,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지닌 나라로 끊임없는 왜적의 침입에 시달렸다. 이러한 왜적의 침입에 대항하면서 나라일을 근심하는 ‘憂國’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조선조에 들어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忠’의 이념이 더해져 ‘憂國衷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송강 역시 유교 사상에 입각한 조선 사대부로서 ‘憂國衷情’의 이념을 문학작품 전반에 걸쳐 담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영유현에 이르러到永柔縣」이다.

梨花時節雨霏霏 배꽃 피는 시절에 비는 주룩주룩
滿目干戈獨掩扉 병장기 눈에 가득하니 홀로 사립문 닫았네.
迢遞塞天愁玉輦 아슬한 변방 하늘 임금님 걱정에
老臣危涕日沾衣 늙은 신하는 눈물이 날마다 옷에 젖나니.

유배의 상황에 있던 송강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길을 재촉하며 가는 도중, 영

유현에 이르러 이러한 한시를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배꽃 피는 시절에 비는 주룩주룩’이라는 표현은 비 내리는 山水景物의 모습을 통해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자신의 心境을 눈물에 빚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송강이 山水景物을 감상하는 사이에 감성의 영역을 느끼며, “대상에 대한 적극적 정신화의 결과로 자각적 감정의 형상화”⁴⁹⁾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자각적 감정의 형상화는 전란의 상황에서 하루빨리 임금의 옆에서 나라와 임금을 지키고자 하는 ‘憂國衷情’의 이념으로 표상되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중양절 전날 밤 강도의 여관에서重陽前夜在江都旅寓」이다.

江都風雨夜厭厭 江都에 비바람이 밤중에 후둑후둑
萬目干戈客滯淹 병장기 가득하여 객의 갈 길 막혔네라.
無限別愁無限淚 한정 없는 슬픔에 한정 없는 눈물이라
海村何處有靑帘 海村 어느 곳에 술집 旗 걸렸는고.

조선사에 큰 충격과 시련을 가져온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무렵에,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송강의 ‘憂國衷情’이 형상화 되어 있다. 첫 구절 ‘강도에 비바람이 밤중에 후둑후둑’에서 임진왜란으로 위기에 처해 암울한 조선의 상황은 은유되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뒤이어 ‘병장기 가득하여 객의 갈 길 막혔네라’는 표현에서 전란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국에 슬픔이 가득 차 눈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고 슬퍼하는 송강의 憂國衷情의 이념이 發現된 한시라고 할 수 있겠다. 한시뿐만 아니라 송강의 문학 전반에는 憂國衷情의 이념이 나타나는데, 다음은 「關東別曲」의 한 구절이다.

平邱驛역 물을 7라 黑흑水슈로 도라드니
蟾蜍江강은 어디메오 雉티岳악은 여기로다
昭陽陽江강 느린 물이 어드리로 든단말고
孤고臣신去거國國에 白뽁髮발도 하도할샤.(關東別曲)

49)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46쪽.

강원도 관찰사의 소임을 맡은 송강은 서울을 떠난다. 평구(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주로 들어가기에 이른다. 그리고 치악산에 이른 송강은 ‘昭杻陽양江강 느린 물이 어드리로 든단말고 / 孤고臣신去거國국에 白빅髮발도 하도할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昭杻陽양江강 느린 물’은 조정의 간신을 상징한다. 또한 ‘孤고臣신’은 외로운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과 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白빅髮발’은 “왕정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자각한 데서 오는 것”⁵⁰⁾으로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즉 憂國衷情의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송강은 조선 사대부로서 힘든 유배의 상황이나 전란의 상황에서도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으며, 그의 삶에 있어서 순탄치 않은 정치적 행로와 시대적 배경은, 憂國衷情의 이념적 가치를 강하게 형성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0) 崔圭穗,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164쪽.

IV. 歌辭文學과 山水遊賞

1. 關東別曲과 山水遊覽

山水遊賞은 산수를 유람하면서 心懷를 풀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16~17세기 문인들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시기 “사대부들은 정치의 현실에서 물러 나오면, 자연과 화합을 이루며 자연에 자신의 이념을 실어 가사로 표현하며 생활하였다. 또 왕명을 받아 벼슬길이나 사행(使行)길을 가면서 사대부는 여행한 지역의 경치와 풍물을 가사를 통해 표현하면서 자연에 사대부들의 이념을 실어 펴고 있다.”⁵¹⁾

또한 “16세기 사림파들이 산과 시내를 아우르는 지점에 서재나 정자를 짓고 산수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도의를 닦고 심성을 기르며 학문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의 소재로 채택된 것이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이었다.”⁵²⁾ 그렇기에 많은 조선 사대부들은 각박한 정치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과 학문적 성찰의 소망으로 산수를 찾았다.

송강 역시 조선 사대부로서 산수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겼다. 유년시절 을사사화를 겪고, 벼슬길에 나아가 논핵을 당하여 여러 차례 유배를 당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는 그때마다 고향 창평에 내려가 산수를 즐기며 마음을 위로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송강의 생애나 그의 문학을 논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산수와의 관계가 핵심이 되어 왔다. 송강의 시가문학 전반에 두루 걸쳐 있는 산수문학적인 면모는 그가 산수를 바라봄에 있어 누구보다도 깊이 관찰하고, 느낀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關東別曲』은 송강이 지은 가사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작품으로 내·외·해금강과 관동팔경 등을 유람한 과정을 담은 가사로 작자가 산수를 유람하며 자신이

51) 류해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311쪽.

52)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 1998, 241쪽.

느끼는 心境을 다양한 표현기법과 감각적인 어휘 구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營唄中唄이 無무事사하고 時時節절이 三삼月월인제
花화川천 시내길이 楓풍岳악으로 버더있다
行행裝장을 다덜티고 石石徑徑의 막대디퍼
百백川천洞동 겨티두고 萬萬瀑폭洞동 드러가니
銀은ㄱ튼 무지게 玉옥ㄱ튼 龍용의 초리
씻들며 썸는 소리 十십리리에 즈자시니
들을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산으로 향한 송강은 ‘營唄中唄이 無무事사하고 時時節절이 三삼月월인제 / 花화川천 시내길이 楓풍岳악으로 버더있다’라고 노래한다. 겨울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자연의 만물들이 소생하는 3월, 금강산으로 향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내금강의 모습을 ‘花화川천’이라 하는 것으로, 흡사 강위에 꽃들이 피어 있는 듯, 무릉도원과 같은 仙境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營唄中唄이 無무事사하고’는 산수를 오로지 미적 대상으로만 인식한 송강의 유풀적 표현으로 이상세계, 즉 자신이 부임한 이곳에 太平聖代를 이루겠다는 목민관적 태도로 볼 수 있겠다.

또한 ‘百백川천洞동 겨티두고 萬萬瀑폭洞동’의 폭포에 대하여 ‘銀은ㄱ튼 무지게 玉옥ㄱ튼 龍용의 초리’라고 묘사함은 大自然에서 생성된 폭포의 아름다움을 절묘한 어휘를 사용하여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씻들며 썸는’ 폭포수의 맑고 웅장한 소리의 특징을 천둥의 소리인 ‘우레’라고 형상화하여, 大自然의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송강은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한 그 느낌을 수용하고 지각의 확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大自然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山水遊覽에서도 조선 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어와 造造化翁翁이 현스도 현스홀사
늘거든 썸디마나 셋거든 솟디마나

송강은 절대자 혹은 신으로 볼 수 있는 조물주가 만든 ‘늘거든 췌디마나 셋거든 솟디마’한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금강산이라는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움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關東別曲」의 산수유비적이고 유미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또한 아름답고 리듬감 넘치는 우리말의 특징을 배분 사용하여 산수의 敍景美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⁵³⁾이라 할 수 있겠다. 나아가 山水遊覽을 하며 들쭉날쭉한 산수의 모습에 송강 자신 또한 기쁨의 ‘興’이 오르고 있다.

외나모 뼈근 드리 佛불頂정臺대에 올라흐니
 千천尋심 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두고
 銀은河하水수 한구비를 촌촌히 버혀내여
 실ㄴ티 플터이서 뵈ㄴ티 거러시니
 圖도經경 열두구비 내보매는 여러히라

불정대에 오른 송강이 눈앞에 펼쳐진 절벽을 보고 ‘千천尋심 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두고’라고 묘사함은 절벽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山水景物의 신비함을 절묘하게 노래한 것이다. 또한 ‘銀은河하水수 한구비를 촌촌히 버혀내여 / 실ㄴ티 플터이서 뵈ㄴ티 거러시니’는 절벽에서 쏟아 내리는 폭포수의 아름다운 물줄기를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 가는 실, 베’에 비유한 것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大自然의 모습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핀 만폭동의 웅장한 폭포수와는 달리, 부드럽고 섬세한 폭포수를 연상할 수 있도록 ‘실, 베’를 활용하여, 山水景物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송강은 山水遊覽을 통하여 大自然의 신비로운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곡진하게 표현하였으며, 열 두 폭포의 경관 형용을 통해 연상의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落낙山산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臺에 올라안자

53) 박소용,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34쪽.

日日出출을 보리라 밭둥만 니러흐니
 祥상雲운이 집피는동 六육龍龍이 바퇴는동
 바다히 썬날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천中중의 텃쓰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 구름이 근처의 머물세라

의상대에 오른 송강은 ‘日日出출’을 보기 위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눈앞에 구름을 보며 ‘祥상雲운이 집피는동 六육龍龍이 바퇴는동’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는 山水景物의 아름다움에 感化된 송강이 ‘구름’을 ‘용’으로 즉, 생명체로서 존재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大自然에서 느끼는 정감이 정신세계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감의 “승화는 눈앞에 있는 현실 공간이 인간의 의식계인 관념 속으로 공간이동을 하게 되어 정신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단순한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의 경물은 감상자의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상징물이 된다.”⁵⁴⁾

또한 송강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天천中중의 텃(티)쓰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라고 노래한다. 여기서 ‘해 =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임금으로 상징되는 ‘해’가 작은 털조차 헤아릴 만큼 밝다고 했으니, 조선 사대부로서 임금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길 바라는 理想的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뒤이어 ‘아마도 널 구름이 근처의 머물세라’는 표현에서 ‘해 = 임금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구름’을 간신으로 생각해본다면, 임금을 걱정하는 조선 사대부의 충절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송강은 자연을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山水景物과 사대부로서의 인생을 等位的 차원에서 사색하며, 자신의 美意識을 투영하여 理想的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갯둑 怒노흔 고래 뉘라셔 놀래관대
 불거니뿔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것거내여 육합의 느리는듯

54)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65쪽.

五오月월長당天甸의 白빅雪설은 므스일고

망양정에 올라 동해 바다를 보는 송강은 파도를 ‘갯둑 怒노흔 고래’로 비유하여, 파도치는 모습을 ‘어즈러이 구는디고’라 하여 山水景物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뒤이어 그는 ‘銀은山산을 것거내어’ 이것으로 마치 ‘五오月월長당天甸의 白빅雪설’이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銀은山산’과 ‘白빅雪설’은 파도의 물거품으로, 이는 송강이 山水景物을 감상하는 사이에 자신이 느끼는 미적인 감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거센 바람이 불면 물거품이 일면서 파도가 이리저리 치기 마련이다. 송강은 이러한 파도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정치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송강은 山水景物의 문학적 형상화를 뛰어 넘어, 나라의 정치 현실을 근심하는 憂國의 理念的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저근덧 밤이드러 風풍浪浪이 정흐거늘
扶부桑상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天천丈丈당이 뵈는듯 숨는고야
珠쥬簾렴을 고터것도 玉옥階계를 다시쓸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곳초안자 보라보니
白빅蓮년花화 흔가지로 누라서 보내신고
일이 玆흔 世세계계 늑대되 다뵈고져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고, 송강은 ‘明明月월’을 기다리고 있다. ‘明明月월 = 임금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뒤이어 ‘瑞서光광天천丈丈당’, 즉 임금의 은혜로 상징되는 빛이 나타났다가 숨어 버림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 사대부의 理念的 가치, 즉 임금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상서로운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珠쥬簾렴을 고터것도 玉옥階계를 다시쓸며’ 꾀꾀이 앉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珠쥬簾렴’은 청렴·결백함, ‘玉옥

단계'는 맑고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송강 자신의 청렴함을 투영하는 것으로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한 그의 聯想이 곧 문학적 想像으로 발전하여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한 것이다. 나아가 그의 想像은 모든 욕망을 초월한 상태에서 山水景物을 오직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향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애타게 기다리던 '白淸蓮年花화 훈가지 = 달빛'이 등장하고, 이러한 '달빛 = 임금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다는 선정의 포부, 즉 조선 사대부의 이념적 가치인 愛民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송강은 山水遊覽을 통하여 山水景物을 단순한 외형적 속성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다. 또한 자연에 대한 감상적 이해를 통하여 서정의 영역을 개척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으며, 조선 사대부로서의 理念的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2. 星山別曲과 山水閑情

山水閑情이라 함은 산수 속에서 한가로이 즐기는 마음을 말한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16세기 사대부들은 산수 속에서 도를 닦고 심성을 기르는 학문생활을 해 나갔다. 그들은 사유의 토지를 생활근거로 하여 관료로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물러나면 향리 생활과 함께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山水閑情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산수생활의 흥취를 노래하는 시가문학이 나왔으며, 이러한 풍조는 당시 사림문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송강은 16세 경에 창평에 정착하고, 湖南歌壇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김윤제의 환벽당에서 시작하여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등 四仙과 함께 아름다운 성산의 풍류를 익혔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훗날 송강이 정치현실에 지쳐 물러나 창평 성산에서 거주할 때, 산수생활을 노래한 가사 「星山別曲」으로 나타났다. 「星山別曲」은 송강의 시가문학 중에서도 특히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자연과 벗

삼아 한가로이 즐기는 山水閑情의 모습을 보인다.

엇던 디날손이 星성山산의 머물며서
棲서霞하堂당 息식影영亭亭 주인아 내말듯소
人인생생 世世間간의 도흔일 하건마는
엇디흔 강산을 가디록 나이녀겨
寂적寞막山산中동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

‘엇던 디날손이 星성山산의 머물며서’라는 표현처럼, 송강은 자신을 성산을 지나쳐가는 ‘나그네’로 언급하며, 여느 조선 사대부들과 같이 자연에 물러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棲서霞하堂당 息식影영亭亭 주인’에게 ‘人인생생 世世間간의 도흔일 하건마는 / 엇디흔 강산을 가디록 나이녀겨 / 寂적寞막山산中동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라고 말하고 있다. 낙향에 임하기까지 송강은 임금의 은혜에 힘입어 조선 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렇기에 ‘棲서霞하堂당 息식影영亭亭 주인’에게도 ‘人인생생 世世間간의 도흔일 = 관료로서 經國濟民의 이상 실현’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영정 주인인 김성원은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조용한 산중에서 山水閑情의 삶을 살았는데, 송강은 산수생활을 하는 김성원에게 ‘사대부로서 벼슬길에 나아가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천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의 한가로운 산수생활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현실적 염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송강의 현실적 염원의 근거는 그가 정치현실에 염증을 느낄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였던 장소가 성산이며, 여러 차례 임금의 부름에도 이를 거절하여 산수생활을 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겠다.

滄창溪계 흰물결이 亭亭子즈알피 둘러시니
天텨孫손 雲운錦금을 누라셔 버혀내어
닛는듯 꺾티는듯 흰스토 흰스홀샤
山산中동의 冊책曆력업서 四사時시를 모르더니
눈아래 헤틴 룡이 철철이 절로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선間간이라

송강은 정자 앞에 흐르는 작은 시내를 ‘흰물결’이라 묘사하고 있다. 이는 강물의 모습이 햇빛에 반사되어 흰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뒤이은 ‘天浬孫손 雲운錦금을 누라서 버혀내여’는 부드럽게 출렁거리는 물결을 ‘은하수’, 또는 ‘비단’에 빚댄 은유적 표현이다. 그리고 은하수와 비단과 같은 물결이 ‘닛는듯 퍼티는듯’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山水景物의 모습을 ‘현스토 현스홀샤’라며 감탄하고 있다.

또한 송강은 ‘山산中등의 冊책曆력엽서 四사時시를 모르더니 / 눈아래 헤틴 景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선間간이라’고 노래한다. 이는 세속과 단절된 성산의 사계절을 감상하는 사이에 송강이 신선의 세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山水景物의 변화로 인하여 四季節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大自然의 신비로운 모습을 仙境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송강은 아름다운 山水景物의 감상으로 말미암아 ‘仙’의 자연환경을 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경지 ‘心境’을 통하여 감동의 세계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계절을 모를 만큼 자연에 몰입하고 있으며, 세속을 초탈한 산수생활의 즐거움, 즉 山水閑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梅미窓창 아적빛히 香향氣기에 즘을찌니
 仙山翁옹의 희을일이 곳업도 아니흐다
 울밋 陽양地地편의 외씨를 췌허두고
 띠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내니
 靑靑門문故고事사를 이제도 잇다홀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듯한 봄의 계절에 송강은 ‘梅미窓창 아적빛히 香향氣기에 즘을찌니 / 仙山翁옹의 희을일이 곳업도 아니흐다’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매화라는 山水景物을 통해 봄의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香향氣기’라는 후각적 감각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어서 ‘울밋 陽양地地편의 외씨를 췌허두고 / 띠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내니 / 靑靑門문故고事사를 이제도 잇다홀다’라 노래한다. 여기서 “靑門故事의 靑門

은 長安城 東南門으로 秦나라 당시 邵平이라는 이가 東陵侯에 封해졌는데, 한나라가 진을 치게 되어, 이 벼슬에서 떨어져 오이를 심고 지내니, 이 오이를 동릉과 또는 청문과”⁵⁵⁾라 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도 바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歸村을 선택하여 조그마한 텃밭에서 오이나 고추 등을 심으며 자연과 함께한다. 이처럼 송강은 청문고사를 인용하여 산수생활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짓는 사대부의 검소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검소와 검약을 표방하여 분수를 지키고 절제하는 생활에 대한 묘사는, 곤궁한 산골 생활에도 만족하는 맑고 고결한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⁵⁶⁾주며,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산수생활에서 한가로움, 즉 山水閑情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芒屨혜를 비야신고 竹獨杖당을 훑더디니
 桃도花화편 시내길이 芳芳草초洲주에 니어세라
 닷보근 明明鏡경中憵 절로그린 石석屏屏風풍
 그림애를 버들사마 西서河하로 흙씩가니
 桃도源원은 어드메오 武武陵릉이 여기로다

외출을 나가는 송강이 ‘芒屨혜를 비야신고 竹獨杖당을 훑더디니 / 桃도花화편 시내길이 芳芳草초洲주에 니어세라’라고 노래함은 봄날 짙신을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든 그의 눈앞에 ‘복숭아 꽃이 핀 시내길이 아름다운 풀이 우거진 물 속의 섬에 이어진 것’ 같은 경관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방초주를 ‘닷보근 明明鏡경中憵 절로그린 石석屏屏風풍’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山水景物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대자연의 조화롭고 신비로운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다. 뒤이은 ‘桃도源원은 어드메오 武武陵릉이 여기로다’는 그림 같이 펼쳐진 山水景物의 세계에 대한 감동을 무릉도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송강의 감동은 “선경으로 인식된 공간을 찾았을 때에 느끼게 된 청신한 정신의 경지를 상징”⁵⁷⁾하며, 세속의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것이라 하겠다.

55) 朴晟義, 『松江歌詞』, 五音社, 1958, 94쪽.

56)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16쪽.

57)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19쪽.

이처럼 송강은 자신이 지내고 있는 봄날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한 감동을 무릉도원이라는 仙境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한가로운 산수생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梧梧桐동 서리 들이 四스更경의 도다오니
 千천巖암萬만壑학이 낮인들 그리홀가
 湖호洲洲 水수晶정宮궁을 뉘라셔 옮겨온고
 銀은河하를 건너뛰여 廣광寒한殿殿의 올랐는듯

어둡고 캄캄할 것 같은 새벽이지만 ‘梧梧桐동 서리 들’이 솟아오르고 ‘千천巖암萬만壑학’이 달빛에 의하여 낮처럼 흰히 보이는 광경이다. 여기서 ‘달빛’을 ‘임금의 은혜’로 생각해본다면, 어둡고 침침한 ‘千천巖암萬만壑학’까지 임금의 은혜가 널리 퍼져 세상이 환해지길 바라는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뒤이어 송강은 이처럼 신비로운 大自然의 모습에 ‘湖호洲洲 水수晶정宮궁을 뉘라셔 옮겨온고’라 하며 감탄하고 있다.

그리고 ‘銀은河하를 건너뛰여 廣광寒한殿殿의 올랐는듯’이라는 묘사를 통해 ‘廣光寒한殿殿’이라는 달 속에 있는 궁전, 즉 신선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황홀한 心境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비로운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한 그의 정신적 만족이 “자아를 망각하고 自然과 합하여 하나(一)가 되는, 自然合一이란 어떤 이상을 지향하는 관념적 사유”를 仙境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 것이다.

짜마즌 늘근술란 釣釣臺臺에 세여두고
 그아래 비를씨워 갈대로 더저두니
 紅홍蓼노花화 白백蘋빈洲洲 어느스이 디나관디
 環환璧벽堂당 龍龍의소히 비압피 다하느니
 靑靑江강綠綠草초邊邊의 쇼머기논 아히들이
 어위롤 계워 短단笛덕을 빗기부니

송강은 ‘짜마즌 늘근술란 釣釣臺臺에 세여두고 / 그아래 비를씨워 갈대로 더저두니’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세속의 번거로움을 벗어나 한가로이 뱃놀이를 즐기

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어 ‘紅蓼花白蘋洲 龍의소히 비얹피 다하느니’는 「星山別曲」을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잔잔한 강물에 배를 띄워 시간을 잊고 여유롭게 꽃구경 하는 송강에 대한 상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뒤이은 ‘靑靑江綠草邊 的 쇼머기는 아히들이 / 어위를 계워 短단笛덕을 빗기부니’라는 표현에서 목동들의 ‘피리 소리’는 청각적 심상으로 송강의 풍류를 운치 있게 더하고 있다. 여기서 ‘목동들의 피리 소리’는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성산의 아름다운 山水景物을 감상하며 촉발된 그의 聯想이 곧 문학적 상상으로 발전하여 ‘피리 소리’라는 음향미를 발견한 것이다.

이처럼 송강은 사계절의 변화 따른 山水景物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의식하여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다. 또한 大自然의 신비로움에 대한 감동을 仙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세속의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정신세계를 표상함과 동시에 自然合一이란 어떤 이상을 지향하는 관념적 사유를 형상화한 것이다. 나아가 성산의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山水閑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思美人曲과 山水隱遁

산수문학에서 “隱遁은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벼슬살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반전되어, 불만과 허탈의 심정으로 바뀌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생활이다.”⁵⁸⁾

출사와 낙향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송강은 자신의 고향 창평에 내려가 있을 당시 연군가사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을 짓는데, 낙향을 통한 송강의 隱遁은 혼탁한 정치현실에서 이루어진 관계에서의 은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수가 빼어난 곳에는 반드시 누각이나 정자가 있어 그 곳

58)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415쪽.

을 탐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의 산수미를 감상하는 장소로 이용되고”⁵⁹⁾ 있는데, 송강의 가사 작품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그가 松江亭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연군의 정서를 노래하였다. 따라서 松江亭이라는 정자는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닌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세워진 공간이며, 송강이 산수의 미적 공간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진정한 산수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송강에게 있어서 자신을 신뢰하였던 임금과의 떨어짐은 크나큰 불행이었다. 옛 기록에 전후미인곡을 정해·무자년 간의 제작이라 함은 그의 4차 낙향으로 담양의 향리에서 지내던 52·3세 무렵임을 가리킨다. 가사의 사설에서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힌 지 3년이나 된다.‘고 독백하였으니, 50세에 임금 곁을 떠난 이후 머리 단장일랑 아예 하지 않고 독수공방하는 여인처럼 지내던 애뜻한 작자의 삶을 능히 상상할 수 있다.”⁶⁰⁾ 그리고 이와 같이 송강의 낙향은 그의 고독한 山水隱遁의 생활을 말하여 준다.

엇그제 님을 피셔 廣광寒한殿던의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下하계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비슨머리 일키연디 三삼年년이라
 연지분 잇니마는 놀위하야 고이홀고
 믿음의 밋친실음 침침이 빠혀이셔

‘엇그제 님을 피셔 廣광寒한殿던의 올랐더니 / 그 더디 엇디하야 下하계계에 내려오니’라는 표현은 “임금과 정치를 논하는 한양과 자신이 隱遁하는 昌平을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공간으로 설정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과 화자는 과거에 천상에서 함께 했으나, 현재는 화자 홀로 하계에 내려와 있는”⁶¹⁾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廣光寒한殿던 = 한양’이고, ‘下하계계 = 창평’으로 임금과 떨어진 송강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다. 또 다른 한편으로 ‘廣光寒한殿던’을 속세, ‘下하계계’를 산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치현실에서 물어나 산수생활에 임하는 자신의 상황을

59)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29쪽.

60) 박준규, 『미인곡의 산실 송강정』, 태학사, 2010, 25쪽.

61) 박소용,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45쪽

나타낸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뒤이어 ‘올적의 비슨머리 얼키연디 三삼年년이라’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임과 3년이나 떨어진 자신의 고독한 心境을 드러내고 있으며, 속세와 떨어진지 긴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므음의 락친실음’을 통해 자신이 아직도 속세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데, 이러한 깨달음은 송강이 山水隱遁의 생활을 정치적으로 소외된 공간이 아닌 自己反省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지분 잇너마는 놀위흐야 고이홀고’는 임이 오지 않지만 몸단장을 바르게 하려는 정숙한 사대부 여성, 즉 임을 그리워하는 戀君之情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戀君意識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사대부로서의 倫理意識으로, 고독한 山水隱遁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凍동風풍이 건듯부러 積적雪설을 헤터내니
窓창밖과 심근梅미花화 두세가지 피여세라
긷득 冷냉痰담한디 暗암香향은 무스일고

四季節의 첫 시작인 봄을 알리는 ‘凍동風풍이 건듯부러’서 ‘積적雪설’을 헤쳐내고 있다. 여기서 ‘積적雪설’은 임의 부재로 인한 암울한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凍동風풍’은 따뜻한 봄바람, 즉 임의 소식이 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뒤이어 ‘窓창밖과 심근梅미花화’ 두세 가지 피면서 ‘봄 = 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을 확연히 말하여 주고 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온갖 생물이 낳고 자라는 좋은 시절이라 하여, 옛 시에서 이때를 칭송하여 만화 방창萬化方暢 호시절好時節이라고 하였지만, 봄의 극치는 역시 만화萬花(온갖 꽃)의 장식에 있다.”⁶²⁾ 그러나 만화 중에서도 뒤이어 등장하는 매화의 ‘暗암香향’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매화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에도 굳은 절개로 피는 하얀 꽃과 은은하게 배어나는 향기, 즉 매향 때문인데, 이러한 매향이 ‘긷득 冷냉痰담한디’ 퍼져간다는 것은 임을 향한 자신의 절개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

62) 박준규, 『미인곡의 산실 송강정』, 태학사, 2010, 32쪽.

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은 송강이 매화라는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의식하고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山水隱遁의 생활 속에서 “눈앞에 사물들에게서 지각하는 새로운 의미들을 결합함으로써” 상상이라는 새롭고도 독창적인 체험에 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매화를 媒介로 하여 조선 사대부로서 한 임금을 향한 충정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珊山瑚호樹슈 지게우히 白帛玉옥函함의 다마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넘겨신디 보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리리 萬만리리 길흘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송강은 임에게 주려고 옷을 만들고, ‘珊山瑚호樹슈 지게우히 白帛玉옥函함’에 담아두고 있다. 뒤이은 ‘님의게 보내오려 넘겨신디 보라보니 /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라는 표현은 山水隱遁해 있는 송강이 山水景物을 바라보며 ‘산’과 ‘구름’을 임과의 거리 혹은 간신 등을 염두한 시어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千천리리 萬만리리 길’을 통해 ‘산’과 ‘구름’은 임과의 거리감을 묘사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니거든 여러두고 날인가 반기실가’라는 표현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山水隱遁의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옷을 지어 ‘산호수 지게’ 위의 ‘백옥함’에 담아 놓고 자신숨씨에 만족해하는 여유 있는 모습”⁶³⁾에서 수심에 잠겨 있지만 우아함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조선 사대부로서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현실에서 배제된 송강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소외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다.”⁶⁴⁾고 할 수 있겠다. 막연하지만 소망의 끈을

63)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과 맥락』, 새문사, 2016, 162쪽.

64)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55쪽.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송강의 山水隱遁은 좌절이라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삶의 자세와 새로운 삶의 정신적 경계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淸淸光광을 쥐여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붓티고저
樓누우히 거리두고 八팔荒황의 다비최여
深심山산窮궁곡곡 점낫ㄴ티 맹그쇼셔

‘淸淸光광을 쥐여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붓티고저 / 樓우히 거리두고 八팔荒황의 다비최여 / 深심山산窮궁곡곡 점낫ㄴ티 맹그쇼셔’라는 표현은 송강이 그리워하는 입에게 ‘맑은 빛’을 ‘누각’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비추어 소외된 자신이 隱遁하는 ‘深심山산窮궁곡곡’도 대낮같이 만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深심山산窮궁곡곡’은 깊은 산골짜기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공간을 뜻하며, 현재 입과 멀리 떨어져 소외된 송강의 처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처럼 단절된 山水隱遁의 생활에서 송강이 외로움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에게 ‘맑은 빛’을 비취달라는 표현을 통해 입과 멀리 떨어져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찾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송강의 의지는 “객관적 사실로서 시인은 현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주관적으로 정신의 세계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지 아니”⁶⁵⁾한 것으로 그는 山水隱遁의 고립된 생활 속에서도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하여 빛을 찾고자하는 정신적 의지, 즉 自己省察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深심山산窮궁곡곡’을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빛’을 비취달라는 송강의 표현은 임금의 은혜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조선 사대부의 면모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乾건坤곤이 閉폐塞식하야 白빅雪설이 혼빋친제
사툼은 크니와 늘새도 굿쳐있다
瀟쇼湘상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리커든

65)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52쪽.

玉樓누高高處 처야 더욱 닐너 뜨습흐리
 陽양春춘을 부쳐내여 넘겨신디 쏘이고저
 茅모簷첨 비최히를 玉樓누의 올리고저

겨울이라 함은 눈이 내리고 강한 추위가 휘몰아치는 계절로, 가난하거나 혼자 남은 이들에게는 더욱 외롭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이 낫설고 신기한 자연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입과 멀리 떨어져 山水隱遁의 생활을 하는 송강에게는 뻗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기만 하다. ‘乾건坤곤이 閉폐塞식흐야’라는 표현에서 “閉폐塞식은 한자의 사전식 의미에 치중하여 단순히 ‘닫아 막는 것’, 또는 ‘닫혀 막히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보다 ‘겨울에 천지가 얼어붙어 생기가 막힘’을 뜻한 말로 해석된다.”⁶⁶⁾ 이처럼 송강은 자신의 고독한 心境을 온 하늘과 땅이 얼어붙어 생기가 막히는 겨울의 계절감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사름은 크니와 놀새도 굿쳐있다’고 함이 겨울 추위와 눈으로 외롭고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송강의 우울한 心境을 나타내고 있다.

뒤이어 ‘瀟쇼湘상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 玉樓누高高處 처야 더욱 닐너 뜨습흐리’라는 표현은 자신이 지내는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있는 한양은 더욱 추울 것이라 걱정하는, 즉 자신보다 임금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조선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陽양春춘 = 봄별’을 임이 계신 곳에 보내고자하며, ‘茅모簷첨 비최히’를 옥루에 올리고자 한다. 추운 겨울 비록 초가에 지내는 山水隱遁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몸이지만 입을 향한 정성의 마음을 감출길이 없다. 봄철의 따듯하고 맑은 기운을 보내고자하는 송강의 정신적 상태는 쓸쓸한 고독감을 넘어서 자신의 의지를 보내고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표현은 “자연을 대상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지닌 의미존재로 의식적 구성을 하고 자연의 미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다.”⁶⁷⁾

이처럼 송강의 山水隱遁 생활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정치현실에서 소외되어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송강의 心境은 외롭고 쓸쓸하다. 임금의 총애를 받아

66) 박준규, 『미인곡의 산실 송강정』, 태학사, 2010, 57쪽.

67)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58쪽.

조선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송강의 고독함은 여느 사대부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과 떨어진 山水隱遁 생활 속에서 그는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해 知覺의 확대를 열어 山水美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정신적으로 自己省察의 기회를 갖고 있다.

V. 山水美와 山水觀

1. 景物玩賞과 山水親和

송강의 시가문학에는 산수의 배경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태어나 을사사화를 거쳐 창평에 거주할 때의 성장기가 문학적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윤제의 환벽당, 김성원의 식영정 등 그 일대는 대자연의 풍취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뛰어나다. 눈앞에는 자미탄이 흐르고 있으며, 뒤에서 사계절 시시 때때로 변화하는 성산은 마치 신선들이 노는 선계와 같다.

이와 같은 산수를 배경으로 그의 많은 작품들이 창평에서 지어졌는데, 네 편의 가사 중 「星山別曲」은 식영정에서 성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고,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송강정에서 山水景物의 변화와 함께 그려졌다. 이에 더하여 많은 시조와 한시도 창평에서 지어졌는데, 그만큼 창평은 송강에게 산수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며 그의 山水觀을 형성시켜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송강은 湖南歌壇의 일원으로 그의 스승들과 여러 일급 문인들의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 된다. 특히 임억령, 송순 등은 조선조 일대를 풍미했던 江湖歌道の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송강은 뛰어난 스승들로부터 호방한 풍류의 흥취를 배워 산수를 감칠맛 나는 표현 어휘들을 통해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다음은 「關東別曲」에서 망고대에 오른 송강의 心懷이다.

美부蓉용을 꼬짚는듯 白벽玉옥을 못것는듯
東동溟명을 박츠는듯 北북極극을 괴왓는듯
눅홀시고 望망高고臺臺 외로올샤 穴혈望망峯봉
하늘의 추미러 뜨습 물습 스로리라
千천萬만劫劫 지나도록 구필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ㄴㄹㄷ니 쏘잇는가(關東別曲)

송강은 망고대에 올라 혈망봉을 바라보며 ‘芙부蓉용을 쏘갓는듯 白백玉옥을 못갓는듯 / 東동溟명을 박촉는듯 北북極극을 괴왔는듯’이라 노래하고 있다. 이는 하늘까지 치밀어 굽힐 줄을 모르는 산봉우리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높은 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들이 가져있는 보편적인 신앙이다. 이와 같이 산을 신성시 하는 보편적인 신앙에 따라 송강 역시 우뚝 솟은 혈망봉의 모습에 感化 되고, 그 신성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외로울샤 穴혈똥망峯봉’에서 혈망봉의 모습을 외롭다 묘사함은 올바른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없는 지조 높은 선비, 즉 조정의 간신배들과 화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뒤이은 ‘하늘에 추미러 모습 물습 스로리라 / 千천萬만劫劫 디나도록 구필줄 모르느다’라는 표현에서 굽힐 줄 모르는 고결한 선비의 절개를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는 송강이 혈망봉의 외적인 景物玩賞을 넘어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한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각과 의식이 연결되고 통합된 자각에 의하여 어떤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⁶⁸⁾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송강은 山水景物을 玩賞함에 있어서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마저 自然合一에 이르는 기쁨에 취한 심리적 내지는 정신적 상태를 노래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 사대부로서 經國濟民의 뜻을 가진 송강은 깨끗하고 높은 정신을 표상하는 금강산의 혈망봉을 玩賞하며 자신 또한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조 있고, 청렴한 사대부가 되고자 하는 다짐을 노래한 것이다. 다음은 「關東別曲」에서 동해로 가는 장면의 묘사이다.

鳴명沙사길 니근물이 醉취仙仙을 빗기시러
 바다홀 것티두고 海해棠棠花화로 드러가니
 白백鷗구야 느디마라 네벗인줄 엇디아논(關東別曲)

송강은 말을 타고 주변의 경치를 玩賞하며 꽃밭으로 들어가고 있다. ‘醉취仙仙 = 송강’을 뜻하는데, 아름다운 해당화가 핀 꽃밭을 仙境의 세계라 생각하는 송강

68)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51쪽.

의 마음 상태는 이미 자신이 神仙인 것이다. 뒤이어 송강은 ‘白백鷗구’에게 ‘느디마라 네벗인줄 엇디아는’라고 말하고 있는데, ‘白백鷗구’는 현상적인 삶을 초월하여 원초적인 모습을 갖춘 自然合一의 대상으로써, 이는 송강 역시 自然合一의 경지에 오르코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송강은 自然合一의 경지를 소망할 뿐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自然合一의 대상인 ‘白백鷗구’에게 ‘느디마라’라고 한 점에서 그 이상적인 경지를 좇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송강은 自然合一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山水景物의 玩賞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하는 山水親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환벽당 운에 차하다次環碧堂韻」이다.

一道飛泉兩岸間 한 줄기 샘물이 양 언덕 사이에 날리우고
採菱歌起蓼花灣 여뀌꽃 물굽이에 마름 캐는 노래가 이네.
山翁醉倒溪邊石 산 늙은이 시냇가 돌에 취해 누우니
不管沙鷗自往還 아무려나 모랫가 갈매기는 왔다 갔다 하는고나.

푸른 숲 두 언덕 사이로 날아 떨어지는 한 줄기 ‘샘물’과 시냇물에 붉게 핀 ‘여뀌꽃’이 은은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 나아가 ‘마름 캐는 노래’는 그림과 같은 山水景物 모습에 음향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산수 속에 ‘산 늙은이 = 송강’은 술에 취하여 시냇가 돌에 누워있다. ‘갈매기’마저 아름답고 맑은 풍광에 취해 오고 갈 뿐이다.

이와 같이 송강은 아름답고 한가로운 산수의 景物들을 玩賞하면서, 이를 벗 삼아 생활하는 모습이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로이 노니는 ‘갈매기’는 ‘산 늙은이 = 송강’을 대변하여 주고 있는데, ‘갈매기’는 ‘자연’을 상징하는 매개물로서 송강은 현재적 초월하여 “人工이 가해지지 않은 본래적인 자연에 귀속하고 통합”⁶⁹⁾되는 自然合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새원 원취 되어」이다.

새원 원취되어 柴의扉비를 고터닷고

69)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56쪽.

流流水슈靑靑山산을 벗사마 더뎛노라

아히야 磬벽蹄데에 손이라커든 날나가다 ㅎ고려

송강은 신원의 원주가 되어 ‘柴舂扉비’를 다시 닫고, ‘流流水슈靑靑山산’에 몸을 던지고 있다. 여기서 ‘柴舂扉비 = 속세’이며, ‘流流水슈靑靑山산 = 산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표현은 세속의 이욕을 다 잊어버리고 산수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뒤이어 아이에게 ‘손이라커든 날나가다 ㅎ고려’라는 표현은 속세와 완전 단절된, 자연과 하나가 되는 自然合一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그는 원주라는 관료로서의 신분, 즉 자아를 망각한 채 마음이 자연이라는 대상의 내면으로 深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송강은 산수생활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大自然 속에 몰입하고자 하는 山水親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있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소나기 한줄기 연잎에」이다.

쇠나기 한줄기미 년납페 솟드로개

물무든 흔적은 전혀 몰라 보리로다

막음 더ㄱ퉁야 털물줄을 모르고저

송강은 소나기 한줄기가 연잎에 쏟아지는 山水景物의 모습을 玩賞하고 있다. 그런데 연잎이 너무 고결하고 청렴하여 ‘물무든 흔적’을 전혀 몰라보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물무든 흔적’은 ‘속세,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연잎과 같이 내 마음이 속세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즉 외부의 온갖 유혹에도 물들지 않는 청렴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노래이며, 조선의 사대부로서 결백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송강은 ‘연잎’이라는 山水景物의 소재를 활용하여 “소낙비에도 젖지 않는 연잎같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에 현혹되지 않고자 하는”⁷⁰⁾, 즉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山水親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0) 권용주, 「정철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994, 163쪽.

위의 작품들은 분석·종합해보았을 때, 송강은 山水景物을 玩賞함과 동시에 人工 가미되지 않는 원초적인 대자연과 自然合一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또한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동일시하게 보았으며,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의 내면에 자연과 동화되고자하는 山水親和의 소망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山水之樂과 理想世界

山水之樂은 산수 속에서의 즐거움을 뜻하는 것으로써 특히 風流와 仙境世界의 모습으로 문학 작품에 등장한다. 송강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산수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연과 함께 술과 거문고를 좋아했던 그는 산수의 즐거움을 풍류와 선경으로 묘사하였다.

“산수문학에서의 ‘風流를 즐긴다’는 말은 풍류라는 주체의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미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이 체험이 스스로의 지각에 의하여 즐거움이라는 감성의 영역을 자각하고 정신적으로 그 체험의 가치에 대하여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⁷¹⁾한다.

송강은 그의 전 일생을 술과 함께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로, 그의 술에 대한 애정, 지나친 음주에 대한 걱정, 술이 어우러진 풍류의 세계는 실로 남다른 바가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송강의 가사 작품 「關東別曲」에서도 술을 소재로 하고 관동팔경의 산수를 유람하며 자연에 취하여 도도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술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神仙과 동일시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⁷²⁾ 이는 송강 내면의식의 발로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선사대부가 지니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神仙의 삶에 대한 동경과 모방을 노래”⁷³⁾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나아가 “천

71)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22쪽.

72) 權貞姬, 『松江 鄭澈의 時調研究』,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1995, 45쪽.

73)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99쪽.

지만물과 인간을 동일한 차원에서 사고하고 사색하여 우주적 진리를 탐색해 나가는 정신적 삶의 표상⁷⁴⁾으로 仙境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關東別曲」에서 금강대에 올라가 山水景物을 바라보는 송강의 心懷이다.

金金剛강臺디 민우層층의 仙仙鶴학이 샷기치니
春春風풍玉玉笛덕聲聲의 첫줄을 씨뚫던디
縞縞衣의玄玄裳裳이 半半空공의 소소쓰니
西西湖호 넷主主人인을 반겨서 넘노는듯(關東別曲)

송강은 ‘金金剛강臺디 민우層층의 仙仙鶴학이 샷기치니 / 春春風풍玉玉笛덕聲聲의 첫줄을 씨뚫던디’라는 표현을 통해 봄바람이라는 자연의 소리에서 발견한 음향미를 옥피리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봄바람을 단순히 자연물로서가 아니라 이미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뒤이은 ‘縞縞衣의玄玄裳裳이 半半空공의 소소쓰니 / 西西湖호 넷主主人인을 반겨서 넘노는듯.’은 학이 뛰어노는 것 같은 아름다운 山水景物의 모습에 대한 감동을 仙境의 세계로 빗댄 비유적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묘사는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선경을 그려 놓은듯하여 노장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한 송나라 임포를 연상하고 자신을 그에게 비유하여 스스로 인간세계에서 벗어나 신선세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신이 현실세계에서 이탈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즐기려는⁷⁵⁾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송강은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의식하고 美意識을 투영함으로써 음향미라는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에 대한 감동을 仙境의 세계로 형상화 시키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關東別曲」이다.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눈화
億億萬萬蒼蒼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혼 잔 ㅎ갓고야(關東別曲)

74)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20.

75) 石南, 「『關東別曲』과 『적벽부』에 나타난 신선 소재 연구」, 嘉泉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 專攻, 2013, 29쪽.

송강은 羽化登仙하여 신선적인 풍류를 즐기면서 이 술을 가져가 온 천하에 고루 나누어 ‘億億萬萬 蒼生生靈’을 취하게 만들려고 한다. 술을 가지고 풍류를 즐기지만, 그보다 앞서 백성을 생각하는 송강의 ‘愛民意識’이 드러나 있다. 뒤이어 송강은 신선에게 ‘그제야 고타 맛나 또 흥 잔 흥갓고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先憂後樂, 先公後私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팔경을 유람하던 송강은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욕구가 크지만, 현실로 돌아와 목민관으로서 임무를 다 한 후에 만나 풍류를 즐기자는 적절한 제한인 동시에 주체의 自己反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송강은 강원도라는 낯선 지방을 유람하면서 새로운 山水景物을 감상하고 自己反省을 통하여 관찰사로서의 사명의식을 함양하는 풍류의 美意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송강의 「星山別曲」이다.

호르밤 비씨운의 紅홍白백蓮련이 셋거피니
 너람씨 업시서 萬만山산이 향기로다
 濂님溪계를 마조보와 太태極극을 못줍논듯
 太태乙을眞진人인이 玉옥字즈를 헤헛논듯(星山別曲)

하얀 연꽃과 분홍 연꽃이 섞여 피는 성산에 바람까지 없어서 만산에 향기가 퍼지고 있다. 뒤이어 송강은 이처럼 아름다운 산수의 감동을 ‘濂님溪계를 마조보와 太태極극을 못줍논듯 / 太태乙을眞진人인이 玉옥字즈를 헤헛논듯’하는 仙境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사대부들의 사상적 배경은 성리학으로써 자기완성의 실천적 수양을 대단히 중요시하며 神仙이나 仙人의 方術과 그 삶은 배척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산수문학에 등장하는 仙境은 자연히 그들의 사상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變容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⁷⁶⁾ ‘濂님溪계’를 마주보며 그가 지은 ‘太태極극’의 이치를 묻고, ‘太태乙을眞진人인’의 옥자를 탐구 모습이 바로 仙境의 變容인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송강이 山水景物의 玩賞을 통하여 “天地運行的 理致에 대하여

76)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00쪽.

탐구하고 그 근원과 본질에 대하여 깨닫고자”⁷⁷⁾하는 조선 사대부로서의 면모로 자연의 본질과 천지운행의 근원을 ‘얹’의 대상으로 삼고, 궁극의 진리인 ‘道’를 깨우치고자 노력한 것이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남산 퇴 어드메만」이다.

南남산산 퇴 어드메만 古古學學士士 草草堂堂당지어
꽃 두고 둘두고 바회두고 물 둔눈이
술조차 둔눈양호야 날을 오라 호거니

‘古古學學士士’는 송강의 벗이자 풍류객인 고경명이다. 절친한 벗인 고경명이 남산 어디엔가 초당을 지어, 꽃 두고 달 두고 바위와 연못을 둔 공간으로 송강을 초대할 것 같다. ‘꽃·달·바위·연못’은 화조월석을 연상시키는데 술이 없을 리 만무하다.

초·중장은 장면의 하나로 송강은 종장에 남산이라는 산수의 공간 속에서 山水景物을 玩賞하며,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술을 넣어 풍류를 완성하였다. 山水景物 중에서도 四美具가 갖추어진 공간에서 벗과 함께 술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의 心境은 흥겹기 이를 때가 없는 모습이다. 이처럼 송강은 아름다운 山水景物을 玩賞함과 동시에 술로써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송강의 시조에서 풍류를 나타낸 시조로는 「장진주사」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초장에서 송강은 꽃을 꺾어 계산해 가면서 ‘無盡無盡 = 무한히’ 술을 마시고자 한다. 중장에서는 시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가랑비, 함박눈 쌀쌀한 찬바람’이 묘사되어 있다. 인간은 술을 마심에 있어서 그 이유가 다양한데, 이렇게 침침한 분위기 가운데서 술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한다. 마치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가 밝게 떠 있는 날보다는 흐린 날에, 보슬비가 오거나 함박눈이 내리는 날에,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뜨락에 뒹구는 날에 술이 당기는 법이다. 취흥을 아는 이는 위와 같은 날씨가 술 마시기 썩 어울리는 날이란 점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⁷⁸⁾

이처럼 송강은 ‘억새, 속새, 떡갈나무, 사시나무, 흰 달, 가랑비, 함박눈’과 같이

77)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8쪽.

78) 허남춘,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서, 2010, 257쪽.

山水景物의 玩賞을 통해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 분위기 취하고, 꽃을 꺾어 계산해 나가는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신적 상태나 만족에 대한 자각의 정서를 의미”⁷⁹⁾하는 풍류의 즐거움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시조 「거문고 대현 올라」이다.

거문고 大대絃현 올라 한棵과 맞글 디퍼시니
어름의 마킨플 여홀이서 우니는듯
어더서 년넙퓌 디는 비술익는 이룰조차 마초느니

풍류에는 술과 더불어 음악이 존재한다. 현대와는 달리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그들의 풍류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음악은 풍류적 흥취를 완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초장에서 송강은 거문고 대현 위에 손가락을 짚어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문고를 연주하는 소리가 마치 여울에서 소리를 내어 울려 내려 가는듯하다. 바로 이때에 ‘년넙퓌 디는 비술익는 이룰조차 마초느니’것 같다.

이와 같은 표현은 송강이 거문고의 소리를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라는 山水景物과의 조화를 통해 풍류의 음악적 효과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거문고 소리와 빗소리의 “조화로움은 자연의 형식미로서의 음향미인 것”⁸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강은 거문고 연주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음향미의 발견이라는 미적인 체험과 즐거움이라는 감성의 영역을 자각하는, 즉 풍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위의 작품들을 분석하여 종합해보았을 때, 송강의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仙境의 묘사는 그가 산수를 즐거움의 공간이자 동경의 세계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궁극의 진리인 ‘道’를 깨우치고자 노력하는 정신세계의 境界를 表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그는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의식하여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술·음악의 조화로움을 속에서 풍류를 지향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79)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22쪽.

80)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5쪽.

3. 山水境界와 山水觀

山水境界는 눈앞에 보이는 산수의 공간으로, 현대인들은 이러한 산수를 보기 위하여 산이나 강, 바다로 나아가려 하지만, 과거 선인들에게 山水境界는 일상 그 자체였다. 창평의 성산에서 학문을 닦았던 송강은 그곳에서 山水景物을 보는 안식을 길러 자신만의 山水觀을 형성하며, 山水境界를 미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훗날 그가 자신의 문학 소재로 산수를 등장시킨 배경이 되었다. 또한 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國文學 속에서 엄연히 산수는 소재로서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산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산수에 대한 아름다움을 묘사”⁸¹⁾하는 작품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퇴계의 문학에서 “퇴계의 空間認識은 구체적으로 자연이라는 객관적 대상이며 물리의 세계에 대한 지각과 인식을 말한다.”⁸²⁾ 다음 송강의 한시 息影亭雜詠 十首 가운데 「水檻觀魚 물우리에 고기를 보다」이다.

欲識魚之樂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싶어서
終朝俯石灘 아침이 다하도록 돌여울을 들여다 보았네.
吾閒人盡羨 나의 한가로움을 모두들 부러워하지만
猶不及魚閒 오히려 물고기의 한가함엔 미치지 못하네.

송강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싶어서’ 돌여울 안의 물고기를 종일 관찰하고 있다. 뒤이어 ‘나의 한가로움을 모두들 부러워 하지만’이라는 표현처럼 돌여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물고기를 보며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마지막 구에서 ‘오히려 물고기의 한가함엔 미치지 못하네.’라고 하며 아직도 세속에 대한 욕망이 남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 깨닫는다.

81)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5쪽.

82) 손오규, 『退溪時의 空間認識과 山水觀』, 『退溪學論叢』第30輯,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 7쪽.

이는 송강이 돌여울을 또 다른 하나의 작은 山水境界로 인식하여, 그 안에서 山水景物을 감상하며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단순한 山水景物의 외적 감상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하는 조선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棲霞堂 雜詠(金成遠號 四首) 가운데 「石井」이다.

天雲何處看 하늘의 구름을 어디서 볼까 하니
 活水方澄井 물 솟는 네모난 맑은 우물 속에서.
 終日自無風 종일토록 절로 바람 없으니
 一塵寧到鏡 어찌 먼지 한점 거울에 닿았으리요.

‘하늘의 구름을 어디서 볼까 하니 / 물 솟는 네모난 맑은 우물 속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맑은 우물 속에서 하늘의 구름을 보고 있는 송강의 모습에 우물의 투명함을 알 수 있다. 뒤이어 송강은 ‘종일토록 절로 바람 없으니 / 어찌 먼지 한점 거울에 닿았으리요.’라고 하며 우물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과 ‘먼지’를 세상의 욕망, 유혹 등으로 보고 거울과 같은 우물의 청렴·결백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한 그의 연상 작용이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인식하고, 그것이 문학적 想像으로 이어져 산수의 내용미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송강의 문학적 상상은 그의 미적 태도에 기초하는데, “미적 태도는 산수 경물을 어떤 재화적 가치나 경제적 이익생산의 場으로 이해하지 않고, 모든 관심과 욕망을 초월한 상태에서 오직 아름다움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 향수하고자”⁸³⁾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송강의 내부로 山水美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 구절 ‘어찌 먼지 한점 거울에 닿았으리요.’라는 표현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조선 사대부로서의 다짐이며, 속세의 이욕을 초월한 산수, 즉 우물의 고결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山水境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雲水縣亂竹叢中見有古梅一樹 운수현 대숲에 古梅 한 그루가 있음을 보다」이다.

83)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6쪽.

梅花一樹半無枝 매화나무 한 그루 반이나 가지 없지만
 標格依然雪月時 雪月 속에 자태만 의연해라.
 休道託根非處所 있을 곳 아닌데 있노라고 말하지 마시길
 老兄心事此君知 매화의 심사를 대나무가 알리니….

송강은 운수현이라는 대나무 숲에서 매화 한 그루를 보고 있다. 그는 ‘매화나무 한 그루는 반이나 가지가 없지만 / 달빛과 눈 속에 쌓인 그 자태만큼은 의연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올곧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소수의 벗들을 제외하고는 조정의 대신들과 화합하지 못하였던 자신, 즉 늙었으나 절개 있고 의연한 매화나무를 意味存在로 의식하고 자신의 美意識을 투영하고 있다.

또한 ‘매화나무 = 송강’의 心境을 아무도 모르나, 대나무는 알고 있다.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山水景物이자 고결하고 결백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로, 송강은 대나무 숲속에서 매화나무의 절개와 대나무의 지조를 보고, 외롭고 고독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산수와 정신이 하나 되어 상호교용하는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으며, 산수의 미적 범위를 확대하여 대나무 숲을 자기 위로의 山水境界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風樹亭 풍수정」이다.

水國連朝雨	水國엔 아침마다 비오고
山村盡日風	山村엔 온종일 바람 부네.
落花香片片	떨어진 꽃은 조각조각 향기로운데
飛絮雪濛濛	버들개지는 눈처럼 푸슬푸슬.
節序春將盡	節序는 봄도 다하려는데
功名夢亦空	공명은 꿈에서도 없나니
何人是我友	어떤 이가 바로 내 벗인고 하면
漁戶兩三翁	고기 낚는 두 셋 늙은이라네.

송강은 풍수정이라는 정자에서 山水景物을 바라보고 있다. 첫 구절의 강이나 호수가 많은 지역을 나타내는 ‘水國’과 두 번째 구절 ‘山村’으로 보아 송강이 山

水隱遁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그곳에서 비와 바람에 떨어진 꽃을 ‘버들개지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산수를 오로지 미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유희적인 표현으로 송강은 정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수의 미적 공간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진정한 산수미를 감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節序는 봄도 다하려는데, 공명은 꿈에도 없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는 것과 같이 세월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이곳의 산수생활이 너무 좋아 벼슬길에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꿈에조차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이가 내 벗인고 하면 / 고기 낚는 두 셋 늙은이라네.’라는 표현은 속세와 떨어진 산수생활 속에서 자신의 여유로운 삶과 즐거움을 느끼는 서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산수문학에서 閑의 공간은 자연 즉 산수로, 閑情은 산수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혹은 興起되는 서정을 의미”⁸⁴⁾한다. 이와 같이 송강은 산수의 미적 공간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진정한 산수미를 감상함과 동시에 山水境界를 세속적인 이욕을 버리고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송강의 한시 「次瀟灑園韻 二首 소쇄원 운에 차하다」 가운데 마지막 수다.

耿介高蹤客 지조 있는 고상한 선비가
 山中獨掩扉 산중에 홀로 사립문 닫았나니
 水因青嶂合 물은 푸른 산봉우리와 어울리고
 籬以紫藤圍 울타린 자주빛 등넝쿨이 둘렀구나.
 非是隱淪志 숨어 살자는 뜻은 아니지만
 自然車馬稀 車馬가 자연히 줄었나니
 此間有眞樂 이 사이 참된 낙이 있어
 幽事未全微 幽事に 아주 적은 건 아니라네.

소쇄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지곡리에 있는 민간정원으로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園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승 조광조가 유배되자 출사의 뜻을 버린 양산보가 조성하였다. 여기서 ‘지조 있는 고상한 선비’는 양산보일 수도 있고, 낙향해 있는

84)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75쪽.

송강일 수도 있다. 이어 ‘산중에 홀로 사립문 닫았나니’라는 표현은 세속과의 단절을, ‘물은 푸른 산봉우리와 어울리고’는 산수와 동화된 삶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오규는 퇴계시에서 등장하는 “울타리는 세속과의 단절을 암시하며, 자주빛 등녕쿨은 인적 없는 원초의 공간을 상징”⁸⁵⁾한다고 말하였듯이, 이 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쇄원의 울타리와 자주빛 등녕쿨 역시 원초적인 산수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산수 속에서 송강은 ‘이 사이 참된 낙 = 산수생활의 즐거움’을 깨닫는, 즉 세속을 벗어난 정신적 만족을 주는 山水境界로 인식한 것이다.

이상으로 위의 작품들은 분석하여 종합해보았을 때, 송강은 산수의 공간 속에서 山水景物을 意味存在로 의식하여 山水美를 발견하고 있다. 또한 그의 山水境界는 넓은 산수의 공간뿐만 아니라 山水景物을 또 하나의 산수 축소판으로 바라보아 그 안에서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自己省察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세속을 벗어난 정신적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85)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177쪽.

VI. 結論

송강의 시가문학 작품들은 혼란스러웠던 조선조 시대를 살았던 삶의 여건과 일상생활의 단면이 용해되어 있다. 특히 그의 문학에는 전반적으로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理念的 特性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조선 사대부로서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수에 대한 그의 美意識은 실로 탁월하여 산수를 단순히 외적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山水美를 발견함과 동시에 문학 작품이라는 예술로 승화 시켰다. 나아가 그는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에 두루 능통하여 당대의 문학양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탁월한 작품들을 남긴 위대한 문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후대에 찬사를 받는 문인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궁중의 유년시절을 시작하여 을사사화로 인한 유배지 생활, 창평에서 학문을 배운 뒤의 화려한 출사길, 여러 차례의 낙향 등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송강의 삶과 행적을 통해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經國濟民의 이념이다. 송강은 조선 사대부로서 과거를 통해 관료의 생활을 하며, 經國濟民의 이념을 바탕으로 임금에 도와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나 산수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본심은 經國濟民의 실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나 있다. 또한 그는 산수를 감상하며 景物에 자신의 美意識을 담아 經國濟民의 이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둘째, 戀君之情이다. 송강 시가문학에 드러난 이념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의 삶을 짚어보았다. 進退辭穗의 삶을 통하여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긴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많은 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신뢰하며 보호하려 하였던 임금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연군의 정서로 형상화 되어, 임금과 떨어져 있을 때면 어김없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문학 작품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달·별·매화’ 등의 山水景物을 소재로 하고,

이와 같은 山水景物의 감상을 통해 자신의 戀君意識을 형상화 하고 있다.

셋째, 倫理意識와 憂國表情이다. 본시 집안 대대로 ‘孝’가 지극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자 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의 孝心은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묘살이에서 슬픈 감정을 절제하여 손수 제사 음식을 차리는 태도와 정성으로 그의 효심이 잘 드러난다. 나아가 孝를 경국제민의 이상세계로 보고자 하였을 만큼 그는 孝라는 倫理意識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은 정치적 혼란기이며,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을 배경으로 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과 임금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송강은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憂國表情의 이념을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내고 있다.

넷째, 송강의 山水遊賞이다. 山水遊賞은 특히 「關東別曲」에 잘 나타내어져 있는데, 그는 관동팔경을 유람하며 山水景物을 단순한 외형적 속성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美意識을 투영시킴으로써 산수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있다. 나아가 山水遊覽을 통해 조선 사대부로서 자신의 이념을 담아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星山別曲」과 「思美人曲」에서는 각각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山水景物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星山別曲」에서는 정치현실에서 멀어졌지만 성산의 景物을 감상하며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을 벗 삼아 노니는 즐거움, 즉 山水閑情의 모습을 보이며, 아름다운 산수의 감동을 仙境의 세계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송강의 “선경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 그 어떤 모호한 신선적 경지에 대한 동경과 수직적 超世의 관념적 투사를 배격하고 실제적 인간적 삶의 현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⁸⁶⁾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思美人曲」에서는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절의 변화를 그리며 그리움의 心境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山水隱遁의 고독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山水景物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연을 意味存在로 인식하고, 山水美를 발견해내고 있으며, 산수를 정치적으로 소외된 공간이 아닌 自己省察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송강의 山水美와 山水觀이다. 송강은 山水景物을 玩賞함과 동시에 人

86) 손오규, 『산수미학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219쪽.

工 가미되지 않는 원초적인 대자연과 自然合一의 경지를 추구하였고,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동일시하게 보았으며,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의 내면에 자연과 동화되고자하는 山水親和의 소망을 나타내었다.

또한 송강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이상세계, 즉 仙境에 대한 묘사는 그가 산수를 즐거움의 공간이자 동경의 세계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궁극의 진리인 ‘道’를 깨우치고자 노력하는 정신세계의 境界를 表象하는 것이며, 그의 풍류적인 모습은 산수와 술·음악의 조화로움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나아가 송강의 山水境界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으며,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 정신적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鄭 澈, 『松江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58.

朴晟義, 『松江歌辭』, 五音社, 1958.

鄭存澤, 『(國譯)松江集』, 松江遺蹟保存會, 1988.

2. 단행본

권혁명, 『석천 입억령과 식영정 시단』, 도서출판 월인, 2010.

김진옥 『松江 鄭澈文學의 再認識』, 도서출판 역락, 2004.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과 맥락』, 새문사, 2016.

류연석, 『시조와 가사의 해석』, 도서출판 역락, 2015.

류혜춘, 『가사문학의 미학』, 보고사, 2009.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 1998.

박명희, 『호남 한시의 공간과 형상』, 경인문화사, 2006.

박명희, 『호남한시의 전통과 정체성』, 경인문화사, 2013.

박영주, 『고집불통 송강평전』, 고요아침, 2003.

박영주 외 2명,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013.

朴煥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박준규, 『미인곡의 산실 송강정』, 태학사, 2010.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송강유적보존회, 『참선비 송강 정철 푸르른 선비정신』, 고요아침, 2010.

- 李丙疇, 『松江 孤山 文學論』, 이우출판사, 1979.
-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螢雪出版社, 1972.
-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도서출판 역락, 2001.
- 丁益燮, 『湖南歌擅研究』, 진명문화사, 1975.
-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 崔圭穗,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 崔台鎬, 『松江文學論考』, 도서출판 역락, 2000.
- 황병익, 『고전시가의 숲을 누비다』, 도서출판 역락, 2015.
- 허남준, 『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서, 2010.

3. 논문

<학위 논문>

- 고승관, 「尹孤山 詩歌의 主題意識과 山水美」,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7.
- 권용주, 「송강 정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權貞姬, 「松江 鄭澈의 時調研究」,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碩士學位論文, 1995.
-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金廷珉, 「松江文學의 思想的 背景과 自然觀 研究 - 漢詩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專攻 博士學位論文, 2007.
- 문철호, 「松江 文學 研究 - 漢詩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소용,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7.
- 石 南, 「「關東別曲」과 「적벽부」에 나타난 신선 소재 연구」, 嘉泉大學校 大

- 學院 國語國文學科 古典文學 專攻 碩士學位論文, 2013.
- 愼鏞玳, 「鄭澈時調의 性格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1990.
- 송지은, 「송강 정철 문학 연구 - 생애, 사상, 가사 작품 분석의 측면에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
- 李鐘國, 「松江의 國文詩歌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1990.
- 이옥희, 「송강 정철 문학의 미학과 작가 의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재석, 「星山亭閣을 媒介로 한 學問的 交驩과 그 역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崔圭穗, 「松江 鄭澈 詩歌의 美的 特質 研究 - 작품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博士學位論文, 1996.

<일반 논문>

- 박연호, 「식영정 원림의 공간 특성과 <星山別曲>」, 『한국문학논총』 제40집, 2005, 33~58쪽.
- 沈慶昊, 「松江 鄭澈의 삶과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집, 한국한시학회, 2001.
- 손오규, 「退溪時의 空間認識과 山水觀」, 『退溪學論叢』 第30輯, 퇴계학부산연구원, 2017, 7~29쪽.
- 이혜순, 「河西 金麟厚의 여성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08쪽.
- 安秉台, 「松江文學에 나타난 自然觀」, 『동악어문학』 6, 동악어문학회, 1969, 113~154쪽.
- 전재강, 「정철 시조에 나타난 현실 지향과 풍류의 성격」,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207~239쪽.
- 최진원, 「송강시가의 풍류와 그 표상」, 『大東文化研究』 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8. 81~98쪽.

<Abstract>

The Ideology and View of the Landscape of Songgang's Poetry

Kim Hyeon-cheol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Songgang's poetry is recognized for its literary excellence and has received a lot of praise. The study of his work has been continued to the present day, which tells us that it is still of a significant value. Songgang's poetry is based on mountains and water at its core. This is because he reflected an attitude of consciousness and appreciation, perceiving a scenery as an aesthetic object,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wards scenic literature. Songgang, who lived in the Confucian society at that time, shows his own consciousness and ideals in his literary works based on the Confucian ideas.

Therefore, this study plans to see how hi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through his poetic literatur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iew of a landscape of Songgang by looking at the works from aesthetic point of view and analyzing how he shaped his aesthetic consciousness artistically. The summary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the ideology of Gyeongguk Jemin (to take charge of the country and save the people). Songgang, as a nobleman of the Joseon

Dynasty, resigned from an office and lived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s and natural world. In this situation, he kept the realization of Gyeongguk Jemin in mind, which is revealed throughout his works. He appreciated landscapes and expressed the ideology of Gyeongguk Jemin by containing his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scenery of each changing season.

When he was away from the king, he showed the ideology of Yeonggun Jijeong which means to miss the king without fail in his literary works through the life of Jintoe Sasu (to resign and remain in office) and Gwi Georae (to withdraw his public post and return to his hometown). In particular, he used natural features such as the moon, stars and plum blossom as themes, and embodied his longing for the king through enjoying the scenic beauty. In addition, he put emphasis on a sense of ethics or filial duty, considering that he tried to see filial duty as an ideal world of Gyeongguk Jemin. Through the experience of going through political chaos and suffering war, he revealed Uguk Chungjeong (patriotic sentiment) in his works, worrying about the country and the king.

Second, it is Songgang's Sansu Yusang (to take a stroll and see the views surrounding him). This is well found in Gwandong Byeolgok (the song of the sceneries of the Gwandong district). Songgang went sightseeing throughout Gwandong Palgyeong (the eight famous spots in Gwandong) and he perceived the sceneries as objects of beauty beyond mere external appearance. Then he found content beauty of the sceneries by projecting his aesthetic sense. In his work, Seongsan Byeolgok, he admires the scenery of Seongsan, realizes the reasons of Mother Nature, and reveals his carefree feelings on the scenic beauty which is the pleasure of rambling and enjoying nature. In his work, Samiingok (song of longing for the king, song about a woman who misses her dead husband), he finds scenic attractions by perceiving nature as the meaning of existence after observing a change of a landscape during his

solitary and sequestered life. Furthermore, he sees natural beauty as a place that inspires us for self-reflection and is not isolated one from the political world.

Third, it is about Songgang's beauty and the view of a landscape. Enjoying the beautiful landscape, he seeks to be united with pure Mother Nature and expresses his desire to assimilate with nature. With the description of a fairyland, he represents the boundary of ones mental world in an effort to realize an ultimate truth so called 'Do (enlightenment)'. Through detailed activities in harmony with a landscape, alcohol and music, he shows a taste for the arts which shows a scope of sensitivity, an aesthetic immersion experience and pleasure. His landscape boundary symbolizes room for researching the reasons of nature and shining his own inner nature.

Keyword : scenic literature, ideology, Jintoe Sasu(to resign and remain in office), Gwi Georae(to withdraw his public post and return to his hometown), aesthetic consciousness artistically, beauty, the view of a landscape.